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24 EPICTETUS THE FREE MA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Epictetus the Free Man」 (원서 PDF 173~183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9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몸이 묶인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를 말한 스토아는 많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부유하고 이름나고 힘 있는 사람이었다. 서기 55년 노예로 태어난 에픽테토스에게 자유는 비유가 아니라 날마다의 싸움이었다.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주인이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릴 때도 소리 내지 않았고, 평생 절뚝이며 걸으면서도 다리는 묶여도 선택은 묶이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공부에도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막히는 지문 앞에서 '나는 원래 영어를 못한다'는 약한 손잡이를 잡을 수도, '어디서 막혔는지 찾자'는 강한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3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판단이 우리를 흔든다(179쪽 ¶1) / 자기 훈련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180쪽 ¶7) / 손에 쥐는 철학 『엥케이리디온』(182쪽 ¶2~¶4 · 인용) / 자유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176쪽 ¶1~¶2) /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구현하라(183쪽 ¶2~¶3)
4~5	**밑줄 함축 의미**	the privilege dripping from most of their writings / Freedom was not a metaphor / act well the character assigned you /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 / the thing you missed is the Capitol / a hospital / a cog in the enormous imperial hegemon / two handles / Where our heart is set /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 / belong to us only in trust / embody it
6	지칭 추론	he · him · his가 무소니우스 · 에픽테토스 사이를 오가는 176쪽 ¶4~¶6 / him = 주인(175쪽 ¶2) / one = 노예(174쪽 ¶5) / it = 절뚝임(175쪽 ¶5) / the man's cobbler의 the man = 네로(175쪽 ¶10) / He called it의 it = 요약본(182쪽 ¶3)
7~8	내용 일치·불일치	출생과 노예의 법(174쪽 ¶7~¶8: 55 AD · 히에라폴리스 · '얻은 자' ·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 · 서른 살 · 에파프로디토스) / 자유인이 된 뒤(177쪽 ¶3~¶6: 30대 · 학자의 길 · 93 AD 도미티아누스 · 니코폴리스) / 등잔(180쪽 ¶4~¶6: 쇠 등잔 → 질그릇 등잔 · 3,000드라크마) / 사후(182쪽 ¶1~¶3: 135 AD 무렵 · 아리아노스 여덟 권)
9~10	**어법**	cannot help but + 원형 · make it impossible for ~ to be p.p. · that절 주어 · as we each hold the power to do · It was ~ that 강조 · may well have p.p. · be better to A than to B · as if + 과거완료 · instead of -ing · one of the first to V · 양보의 as ~ as · no matter + 명사 · essential that + not 원형 · keep + O + -ing · nor + 도치 · that which · 사역 have + O + 원형 — 9번은 세네카와 아그리피누스(176쪽 ¶1~¶3), 10번은 부유해진 청중과 하드리아누스(178쪽 ¶4~¶5)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abstractly↔concretely · overtly↔covertly · depraved↔virtuous · opulence↔poverty · flatter↔insult · attentive↔inattentive · affluent↔impoverished · tacitly↔explicitly · debase↔elevate · subjugate↔liberate · frugal↔extravagant · conceit↔humility — 11번은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한 야망(179쪽 ¶8 ~ 180쪽 ¶1)
12	빈칸 추론	abstractly / acquired one / an impediment to the leg, but not to the will / a state of mind, a way of living / silence / a hospital / what is up to us / freedom of choice / which handle we grab / our judgment about things / persist and resist / for its own sake / to have at hand
13	문장 삽입	다리가 부러진 장면(175쪽 ¶2~¶5): 비튼 다리 → 이유는 모름 → 차분한 경고 → 부러짐과 미소 → 몸서리 → 평생의 절뚝임 / 등잔 도둑(180쪽 ¶4~¶6)
14	무관한 문장	실천이 전부(181쪽 ¶2~¶4)에 고아를 입양한 이야기 끼워 넣기 / 두 가지 노예 상태(177쪽 ¶1~¶2) / 하드리아누스와 마르쿠스(178쪽 ¶5)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실수 → 카피톨리움 핑계 → 바보라는 꾸짖음 → 철학 전체의 실패 → 줄여 말하는 죄 → 병원 같은 강의실(176쪽 ¶7 ~ 177쪽 첫 줄) / 30대 해방 → 학자의 길 → 93 AD 추방 → 니코폴리스(177쪽 ¶3~¶6)
16	요약문 완성	카스카 · 브루투스의 칼 vs 손에 쥐는 더 깊은 자유 → 투생 루베르튀르 · 스톡데일(182쪽 ¶5 ~ 183쪽 첫 줄) /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177쪽 ¶9 ~ 178쪽 ¶1)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적지 않은 장이다(55 · 78 · 93 · 135 AD · 44 BC · 1501 · 1965 / 서른 살 · 30대 · 150만 세스테르티우스 · 500마일 · 3,000드라크마 · 여덟 권 · 일곱 자녀(26장은 여덟)). 인물도 많다(에파프로디토스 · 아우구스투스 · 세네카 · 아그리피누스 · 무소니우스 · 도미티아누스 · 하드리아누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아울루스 겔리우스 · 아리아노스 · 투생 루베르튀르 · 스톡데일).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neglected to publish ↔ published many books, an iron lamp ↔ an earthenware lamp(도둑맞은 것은 쇠 등잔), a former slave ↔ a nobleman(에파프로디토스), adopted ↔ fathered(아들)). 동사와 인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Epictetus the Free Man」 (174~183쪽)

전기형(자유를 말한 스토아 vs 자유를 산 노예 → 출생과 노예의 법 → 부러진 다리와 선택 → 네로의 궁정 → 세네카와 아그리피누스 → 무소니우스의 가르침 → 자유인이 되어 학자의 길 → 추방과 니코폴리스 → 우리에게 달린 것 → 두 개의 손잡이 → 판단 · 인내 · 절제 → 등잔과 아들 → 실천과 겸손 → 아리아노스와 『엥케이리디온』 → 후대의 자유). 핵심 축은 **우리에게 달린 것(ta eph'hemin) vs 달리지 않은 것(ta ouk eph'hemin)**, 그리고 **법적 · 몸의 자유 vs 마음의 자유**.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74 ¶1~¶6	도입	자유를 말한 스토아 vs 에픽테토스 / 제논에서 트라세아까지 거의 반천 년 · 글에 배어 있는 특권 / 부유 · 유명 · 권력 → 추상적 자유 / 그는 실제 노예 · 자유는 비유가 아닌 날마다의 싸움
174 ¶7	출생과 상징	55 AD 히에라폴리스 · 태어날 때부터 노예 / 이름 = '얻은 자' / 가장 어두운 처지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 인간 능력의 궁극적 상징
174 ¶8~¶10	노예의 법	노예 여인의 아들 · 오늘날 터키 지역 /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 서른 살 전 해방 불가 · 아우구스투스(스토아 조언자 둘)가 30년을 앗아 감 / 에파프로디토스(전직 노예 · 네로의 비서)에게 팔림 / 쓰다 버리는 그릇
175 ¶1~¶5	부러진 다리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의 전언 · 다리를 비튼 주인(이유는 모름) / 차분한 경고 → 부러져도 소리 없이 미소 ·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 평생 절뚝임(원인은 확실치 않음) / 다리의 장애일 뿐 의지의 장애는 아님
175 ¶6~¶8	선택과 배역	반응은 우리가 정한다 · 장애를 몸의 손상으로만 보기로 선택 → 선택이 철학의 핵심 / 인생은 연극 · 맡은 배역을 잘 연기하는 것이 우리 몫
175 ¶9~¶11	네로의 궁정	60년대 궁정의 사치 · 광기 · 모순 / 150만 세스테르티우스밖에 없다는 사람 / 네로의 구두장이에게까지 아첨하는 에파프로디토스 · 집정관 후보들 / 남의 노예의 손에 입 맞추는 노예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76 ¶1~¶3	세네카와 아그리피누스	세네카: 아무것에도 노예가 아닌 자유 — 그러나 네로를 떠나지 못하고 자살을 강요받음 / 자유 = 마음의 상태 · 삶의 방식 / 궁정에 경악 · 다르게 살기로 결심 / 아그리피누스 = 강력한 반례
176 ¶4~¶6	무소니우스 문하	입문 시점은 모름 / 78 AD 세 번째 망명에서 돌아온 무소니우스 밑에서 공부 / 침묵 = 주의 깊은 학생 · 칭찬 = 도전을 놓친 것 / 듣는 이의 지성에까지 파고드는 가르침
176 ¶7 ~ 177 첫 줄	카피톨리움	"카피톨리움에 불을 지른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 → "이번에 네가 놓친 것이 카피톨리움이다" / 실수를 줄여 말하기 = 로마를 태우고 재 위에서 춤추기 / 철학자의 강의실은 병원
177 ¶1~¶2	두 가지 노예	무소니우스(거듭된 망명)와 에픽테토스(속박) · 쓰라림 대신 마음과 성품에 대한 힘을 깨달음 / 몸을 남에게 주면 격분하면서 마음은 쉽게 내줌
177 ¶3~¶8	자유인의 선택	30대에 법적으로도 자유 / 철학에 전념 · 학자의 길(클레안테스 · 제논 쪽) / 93 AD 도미티아누스의 추방 → 니코폴리스 / 궁정의 스토아에 등을 돌림 · 지혜를 얻고 쓰고 전하는 일
177 ¶9 ~ 178 ¶1	우리에게 달린 것	노예 경험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통찰 / 삶의 주된 과제 = 외적인 것과 내가 통제하는 선택을 가르기 / ta eph'hemin · ta ouk eph'hemin / 다리는 묶어도 선택의 자유는 제우스도 못 꺾음
178 ¶2~¶3	두 개의 손잡이	모든 상황엔 약한 손잡이와 강한 손잡이 / 이기적인 형제 vs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사랑하는 형제 / 어느 손잡이를 잡느냐가 삶과 사람됨을 정함
178 ¶4~¶6	제자와 황제	로마에서 500마일 넘게 떨어져도 부유하고 힘 있는 청중 / 젊은 하드리아누스가 니코폴리스에서 만남 · 존경 · 암묵적 지지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어진 강의 / 손에서 벗어난 것과 손안에 남은 것
179 ¶1~¶8	판단과 인내	사물이 아니라 판단이 우리를 흔든다 · 동의 없이는 상처받지 않음 / 아울루스 겔리우스: 두 결점 → 견뎌라 · 삼가라 / 받은 패를 최대한 살려라 / 바깥 것에 둔 가치가 우리를 남에게 예속
180 ¶1~¶2	자기 자신을 이기기	야망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 가장 큰 승리 =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 / "지금이 시합이다, 너는 올림픽 경기장에 있다"
180 ¶3 ~ 181 ¶1	등잔과 아들	쇠 등잔 도둑 → "내일은 질그릇 등잔을" · 가진 것만 잃을 수 있다 / 사후 3,000드라크마 / 절제를 자랑하지 말 것 / 입양한 고아 · "아침엔 죽어 있을지도" · 맡아 둔 것으로 아끼기
181 ¶2 ~ 182 첫 줄	실천과 겸손	변증술 · 궤변에 쓸 시간은 없음 / 크리시포스를 많이 읽은 것이 진보인가 / 행동이 중요 /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울 수 없다(선의 찻잔) / 아침마다 자기와의 대화
182 ¶1 ~ 183 ¶3	손에 쥐는 자유	135 AD 무렵 죽음 · 한 글자도 출판하지 않음 / 루스티쿠스 → 마르쿠스 / 아리아노스의 여덟 권 · 『엥케이리디온』(손에 쥐다 · 단검) / 브루투스의 칼 vs 더 깊은 자유 / 투생 루베르튀르 · 스톡데일 / 구현하라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유를 말하는 자리	부유 · 유명 · 권력의 스토아 — 추상적 자유(글에 배어 있는 특권)	실제 노예 에픽테토스 — 날마다의 싸움
노예 소유	아무도 묻지 않은 두 황제와 세 스토아 조언자 · 인도적 대우를 자찬	노예로 살며 자유를 찾은 에픽테토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다리가 부러질 때	비틀어 부러뜨린 주인(폭력)	소리 없이 미소 ·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자기 통제)
장애	다리의 장애(an impediment to the leg)	의지에는 장애가 아님(but not to the will)
궁정의 부자들	150만 세스테르티우스로 울상 · 구두장이에게까지 아첨 · 남의 노예의 손에 입맞춤	차분한 마음으로 굶는 편이 낫다 · 의지가 자유로우면 노예가 아니다
세네카 vs 아그리피누스	글로 자유를 말했으나 네로를 떠나지 못한 세네카(on the page)	제 박자대로 걸어 폭정 속에서도 자유로웠던 아그리피누스(in practice)
강의의 성공	칭찬 · 즐거움을 안고 나가는 학생(도전을 놓침)	침묵 · 아픔을 안고 나가는 학생(병원 같은 강의실)
자유인의 진로	원로원 의원 · 장군 · 조언자 · 부유한 상속자(아테노도로스 · 카토)	철학에 전념하는 학자의 길(클레안테스 · 제논)
통제	외적인 것 —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ta ouk eph'hemin)	태도 · 감정 · 욕구 · 의견 — 우리에게 달린 것(ta eph'hemin)
손잡이	약한 손잡이 — 이기적인 형제	강한 손잡이 — 같은 어머니 · 사랑 · 나에게도 있는 나쁜 충동
진보의 기준	크리시포스를 많이 읽고 외우고 펴내는 것	행동 — 더 나은 사람 · 사상가 · 시민이 되려는 노력
자유를 쥐는 손	카스카 · 브루투스의 칼(살해 · 문자 그대로의 무기)	아리아노스가 옮긴 『엥케이리디온』(더 깊은 자유)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Epictetus	B. 55 AD – D. 135 AD(본문: 135년 **무렵**) · 히에라폴리스 출신(오늘날 터키 지역) · 발음 Epic-TEE-tuss · 이름 = 그리스어로 "**얻은 자**(acquired one)" · 노예 여인의 아들
자유를 말한 스토아	제논에서 트라세아까지 거의 **반천 년** · 대부분 부유 · 유명 · 권력(카토 · 제논) · 포세이도니오스와 파나이티오스는 평생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었음
Lex Aelia Sentia	**서른 살** 생일 전에는 노예 해방 불가 · 만든 사람 = **아우구스투스**(스토아 조언자 **둘**) → 에픽테토스의 삶에서 30년을 앗아 감 · "두 황제와 세 스토아 조언자"
Epaphroditus	어린 에픽테토스를 산 주인 · 그 자신 **전직 노예** · 뒤에 **네로의 비서** · 세네카와 함께 일함 · 네로의 구두장이에게까지 아첨
다리 · 절뚝임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이 전함 · 주인이 힘껏 다리를 비틂(이유는 모름) · 차분한 경고 → 부러져도 미소 ·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 평생 절뚝임(이 사건 때문인지 **확실치 않음**) · "다리의 장애이지 의지의 장애가 아니다"
연극의 비유	누구도 삶의 온전한 작가가 아님 · 극작가가 정한 배역(가난한 사람 · 몸이 불편한 사람 · 총독 · 평범한 개인)을 자연스럽게 · 배역을 잘 연기하는 것이 네 몫, 고르는 것은 남의 몫
네로의 궁정	**60년대** · 마지막 **150만** 세스테르티우스(오늘날 최소 300만 달러)밖에 없다며 도움을 구한 사람 · 에파프로디토스의 대답(빈정거림인지 순수한 당혹인지 모름)
Seneca	"자유는 우리가 얻으려 애쓰는 상 — 아무것에도 노예가 아닌 것" · 작가로서 에픽테토스를 스토아에 **입문시켰을 수도**(may well have) · 네로를 떠나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강요받음 → 같은 노예는 아니나 자유롭지도 않음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Agrippinus	에픽테토스가 **아마(likely)** 만났을 사람 · 강력한 반례 · "의지가 자유로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 글 속의 세네카보다 실천하는 아그리피누스에 가까움
Musonius Rufus	**78 AD** 세 번째 망명에서 돌아옴 → 에픽테토스가 그 밑에서 공부(그때 **20대**였을 것) · 침묵 = 주의 깊은 학생 · 칭찬 = 도전을 놓친 것 · 노예는 아니었으나 거듭 망명
Capitol / 강의실	"카피톨리움에 불을 지른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 → "이번에 네가 놓친 것이 카피톨리움이다" · 줄여 말하기 = 로마를 태우고 재 위에서 춤추기 / 강의실 = **병원**(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며 나가야)
30대 / 학자의 길	**30대**에 사실과 법으로도 자유 · 철학에 전념 · 앞선 스토아(원로원 의원 · 장군 · 조언자 · 부유한 상속자)와 달리 **학자의 길**을 택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하나 · 클레안테스 · 제논 쪽(아테노도로스 · 카토 쪽 아님)
93 AD / Nicopolis	**도미티아누스**가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 → 에픽테토스도 망명 · **그리스**의 **니코폴리스** · 제논과 클레안테스가 개척을 도운 그리스 스토아로의 귀환 · 종신직 기대 없음
삶의 주된 과제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과 내가 통제하는 선택을 가르기 · ta eph'hemin(우리에게 달린 것) / ta ouk eph'hemin(달리지 않은 것) · "다리는 묶을 수 있어도 제우스조차 내 선택의 자유는 꺾지 못한다"
두 개의 손잡이	모든 상황 = 약한 손잡이 + 강한 손잡이 · 예: 이기적인 형제 vs 같은 어머니 · 고의가 아님 · 사랑 · 나에게도 있는 나쁜 충동
청중 / Hadrian	로마에서 **500마일** 넘게 떨어진 곳 · 제국 곳곳의 부모가 자녀를 보냄 / 젊은 **하드리아누스**가 니코폴리스를 지나며 만남 · 존경 · 암묵적 지지(『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부적격 철학자를 내쫓기로 유명) / 강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하드리아누스의 입양 손자 · 미래의 왕 — 원서 표기)에게
Aulus Gellius	에픽테토스의 유명한 말을 보존 · 가장 나쁜 두 결점 = **인내 부족 · 절제 부족** · 두 낱말 = anechou(**persist**, 견뎌라) · apechou(**resist**, 삼가라)
등잔	도둑이 현관 신단의 **쇠** 등잔을 훔침 → "내일은 **질그릇** 등잔을 구하겠지, 사람은 가진 것만 잃을 수 있으니" · 사후 한 숭배자가 그 질그릇 등잔을 **3,000드라크마**에 삼
아들	자녀는 없었으나 어린 **고아를 입양**해 어른으로 키움 · "아들에게 잘 자라고 입 맞출 때 '아침엔 죽어 있을지도'라고 속삭여라"(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함 · 그는 평생 자녀 **일곱**을 잃음 — 원서 표기 · 26장 196쪽 ¶5 · 202쪽 ¶4는 여덟)
실천과 겸손	크리시포스를 많이 읽은 것이 진보인가 · 행동이 중요 ·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우기 시작할 수 없다" · 선(禪)의 찻잔 우화 · 크리시포스 · 안티파트로스 · 아르케데무스의 책을 다 읽어도 소용없음 · 아침마다 자기와의 대화
Arrian / Encheiridion	생전에 출판하지 않음(소크라테스 · 카토처럼) · 마르쿠스는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서 강의록을 빌림 · 제자 **아리아노스**(전기 작가 · 하드리아누스 아래 집정관) = 강의 노트 **여덟 권** · 요약본 『엥케이리디온』 = "손에 쥐다" · 롱: 가장 오래된 뜻은 단검(그런 함의를 노렸을 **수도**) · **1501년** 에라스뮈스가 본뜸
후대	카스카 · 브루투스(**44 BC**)의 칼 vs 약 네 세대 뒤 에픽테토스 / **투생 루베르튀르**: 일부 영감 · 아이티 노예 해방 / **1965년** 스톡데일 대령: 베트남 격추 · 스탠퍼드에서 공부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Epictetus the Free Man」 (원서 PDF 174~183쪽) · 9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4-1 자유를 말한 사람들, 자유를 산 노예 174쪽 ¶1~¶10

원문 위치 원서 174쪽 ¶1~¶10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4쪽 ¶2 셋째 문장	the privilege dripping from most of their writings	밑줄 의미: 글마다 배어 있는 특권
▲	174쪽 ¶2 셋째 문장	one cannot help but feel	cannot help but + 원형
▲	174쪽 ¶2 첫·둘째 문장	these philosophers had written … had resisted … had faced	과거완료 — 에픽테토스 이전의 반천 년
▲	174쪽 ¶4	Cato was. Zeno had been.	be동사 뒤 보어 생략(rich · famous · powerful)
★	174쪽 ¶5 첫 문장	they meant it abstractly	빈칸 후보 · 대비: literally in chains
▲	174쪽 ¶5 셋째 문장	slave owners who became owned themselves by …	become + p.p. / 강조의 재귀대명사
◆	174쪽 ¶5 셋째 문장	Epictetus actually was one	지칭: one = a slave(human chattel)
◆	174쪽 ¶6	Freedom was not a metaphor … It was his daily battle.	밑줄 의미 1순위
★	174쪽 ¶7 첫·둘째 문장	55 AD / Hierapolis / "acquired one"	숫자·장소 — 서답형 후보
▲	174쪽 ¶7 셋째 문장	would make Epictetus … the ultimate symbol of the ability … to find	make + O + 명사 보어(대시 삽입)
▲	174쪽 ¶8 셋째 문장	made it impossible for slaves to be freed before	가목적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to be p.p.
★	174쪽 ¶8 넷째 문장	advised by not one but two Stoic philosophers, stole three decades	내용 일치 후보 · not A but B
★	174쪽 ¶8 다섯째 문장	Epaphroditus—a former slave himself—who went on to become Nero's secretary	인물 — 서답형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4쪽 ¶10 셋째 문장	What he could do and couldn't do was overtly controlled	명사절 주어 + 단수 동사
◆	174쪽 ¶10 다섯째 문장	a vessel to be used up and then discarded	밑줄 의미: 쓰고 버리는 도구

내용

자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한 스토아들이 있고, 그리고 에픽테토스가 있다. 제논에서 트라세아까지 거의 반천 년 동안 이 철학자들은 자유에 관해 썼다. 그들은 폭압적인 정부에 맞섰고 망명의 위험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글에서는 특권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부유했고, 유명했고, 힘이 있었다. 카토가 그랬고, 제논도 한때 그랬다. 포세이도니오스와 파나이티오스는 평생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말할 때 그것은 추상적인 뜻이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았다. 세네카는 노예를 책임지고 관리하느라 도리어 노예에게 소유당하게 된 노예 주인에 대해 뜻밖에 공감 가게 이야기하고, 다른 스토아들은 자기 '인간 재산'을 인도적으로 대한다고 자찬했지만, 에픽테토스는 실제로 노예였다. 이 스토아 철학자에게 자유는 비유가 아니라 날마다의 싸움이었다. 서기 55년 히에라폴리스에서 태어난 에픽테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을 알았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문자 그대로 '얻은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의 끈기와 관점과 철저한 자족은, 그의 생애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영향을 준 황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영원히, 그를 가장 어두운 처지에서도 참된 자유를 찾는 인간 능력의 궁극적 상징으로 만들게 된다. 그 처지는 참으로 어두웠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그 가혹한 법을 따라야 했던 지역에서 노예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법 가운데 하나인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은 서른 살 생일 전에는 노예를 해방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을 만들고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스토아 철학자에게 조언을 받은 아우구스투스가 에픽테토스의 삶에서 30년을 앗아 갔다는 것은 불편한 아이러니다. 어린 에픽테토스는 그 자신도 전직 노예였던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는 뒤에 네로의 비서가 되어 세네카와 함께 일했다. 두 황제와 그들에게 조언한 세 명의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지만,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은 하나도 없었던 듯하다. 용기도, 정의도, 절제도, 지혜도 빛났다고 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에픽테토스에게는 제 운명이 공정한지 곱씹을 시간이 거의 없었다. 노예로 사느라 너무 바빴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노골적으로 통제되었고, 노동의 열매는 빼앗겼으며 몸은 학대당했다. 로마는 노예를 부드럽게 대하기로 이름난 곳이 아니었다. 그는 쓰다 버리는 그릇, 쓰러질 때까지 부리다가 처분하는 말과 같은 존재였다.

어법

- **Yet one cannot help but feel the privilege dripping from most of their writings** : cannot help but + 원형 =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feel + O + -ing(지각동사 + 현재분사: 특권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다).
- **For nearly half a millennium, from Zeno to Thrasea, these philosophers had written about freedom** : had written = 과거완료(에픽테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어진 일). from A to B = A에서 B까지(기간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나타냄).
- **Cato was. Zeno had been.** : 앞 문장의 보어(rich · famous · powerful)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be동사만 남긴 생략. had been = 과거완료(제논은 그보다 앞선 시대).
- **While Seneca would speak ... about slave owners who became owned themselves by the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of their slaves, ... Epictetus actually was one** : While = ~하는 반면(대조). become + 과거분사 = ~되다(owned: 소유당하다). themselves = 강조의 재귀대명사. one = a slave(앞의 human chattel).
- **Somehow, despite this, his tenacity, his perspective, and his sheer self-sufficiency would make Epictetus ... the ultimate symbol of the ability of human beings to find true freedom** : 주어는 명사 셋.

make + O + 명사 보어(the ultimate symbol). to find =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despite는 전치사라 명사(this)가 온다.

- **One of those laws, Lex Aelia Sentia, made it impossible for slaves to be freed before their thirtieth birthday** : make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for 의미상 주어 + to부정사. to be freed = 수동(해방'되다'). 주어 One of those laws는 단수.
- **It's a disturbing irony that Augustus, then, who passed the law and was advised by not one but two Stoic philosophers, stole three decades from Epictetus's lif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that절 주어 Augustus와 동사 stole 사이에 계속적 관계절이 끼었다. not A but B = A가 아니라 B(한 명이 아니라 두 명).
- **What he could do and couldn't do was overtly controlled** :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주어(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전체)는 단수 취급 → was. was controlled =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llennium	천 년	thousand years	—
tyrannical	폭압적인	oppressive, despotic	benevolent
privilege	특권	advantage	disadvantage
abstractly	추상적으로	theoretically	concretely
chattel	(동산으로서의) 재산	property	—
metaphor	비유, 은유	figure of speech	—
tenacity	끈기	persistence	irresolution
self-sufficiency	자족, 자립	independence	dependence
brutal	가혹한	harsh, cruel	gentle
temperance	절제	self-restraint	excess
ponder	곰곰이 생각하다	contemplate	ignore
overtly	노골적으로	openly	covertly
discard	버리다	throw away	keep

내용 일치 제논에서 트라세아까지 거의 반천 년 · 대부분 부유 · 유명 · 권력 · 포세이도니오스와 파나이티오스는 일할 필요 없음 · 55 AD 히에라폴리스 출생 · 이름 = '얻은 자' · 노예 여인의 아들 ·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 = 서른 살 전 해방 불가(아우구스투스 · 스토아 조언자 둘) · 주인 에파프로디토스 = 전직 노예 → 네로의 비서. **밑줄 의미** the privilege dripping from most of their writings = 자유를 말한 스토아들의 글에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의 특권이 배어 있다 / Freedom was not a metaphor = 에픽테토스에게 자유는 머릿속 비유가 아니라 몸으로 싸워야 할 현실 / a vessel to be used up and then discarded = 사람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도구 취급.

> **한 줄 요약** 부유하고 힘 있는 스토아들이 추상적으로 자유를 말할 때, 서기 55년 노예로 태어난 에픽테토스에게 자유는 날마다의 싸움이었다.

24-2 부러진 다리, 맡은 배역 175쪽 ¶1~¶8

원문 위치 원서 175쪽 ¶1~¶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5쪽 ¶1	That he even survived into adulthood is a surprise	t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175쪽 ¶2 둘째 문장	Later Christian writers portray …	전언 — 단정하지 말 것(내용 일치 함정)
▲	175쪽 ¶2 둘째 문장	portray … as violent and depraved, at one point twisting	portray A as B + 분사구
▲	175쪽 ¶2 다섯째 문장	Trying to get a disobedient young kid to follow instructions?	get + O + to V
●	175쪽 ¶2 일곱째 문장	Epictetus calmly warned him	반전 후보 → angrily
◆	175쪽 ¶2 일곱째 문장	warned him about taking it too far	지칭: him = 주인 / 문장 삽입 1순위
★	175쪽 ¶2 여덟째·아홉째 문장	made no sound and cried no tears … "Didn't I warn you?"	삽입·순서 후보
◆	175쪽 ¶3 넷째 문장	the sheer self-mastery	밑줄 의미 · 빈칸 후보
▲	175쪽 ¶5 둘째 문장	We can't be certain whether it came from this painful incident or another	certain + whether절 / it = limp
●	175쪽 ¶5 둘째 문장	hobbled by slavery, yet somehow unbroken	반전 후보 → broken
★	175쪽 ¶5 셋째 문장	an impediment to the leg … but not to the will	빈칸·요지 1순위
▲	175쪽 ¶6 둘째 문장	as we each hold the power to do	양태의 as + 대부정사(do = choose)
▲	175쪽 ¶6 둘째 문장	it was that idea of choice … that defined the core	강조구문 + 삽입절 we shall see
◆	175쪽 ¶7 셋째 문장	to act well the character assigned you; to choose it is another's	밑줄 의미 1순위

내용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놀랍다. 로마의 기준으로 보아도 에픽테토스의 주인은 잔인했다.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 주인을 폭력적이고 타락한 사람으로 그리며, 한번은 그가 에픽테토스의 다리를 온 힘을 다해 비틀었다고 전한다. 벌이었을까? 병든 쾌락이었을까? 말 안 듣는 어린아이에게 지시를 따르게 하려던 것이었을까?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듣는 것은 에픽테토스가 너무 지나치지 말라고 차분하게 경고했다는 것뿐이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에픽테토스는 소리를 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주인을 보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왜 우리를 몸서리치게 하는가? 공감이나 고통 때문인가? 그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 때문인가? 아니면 철저한 자기 통제 때문인가? 에픽테토스의 경우는 그 모두이고, 그 이상이다. 에픽테토스는 평생 다리를 절었다.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사건 때문인지 다른 일 때문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가 노예 생활로 다리를 절게 되고도 어찌된 일인지 꺾이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다. 그는 뒤에 "다리를 저는 것은 다리의 장애이지 의지의 장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토아는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정한다고 믿었다. 우리 각자가 그럴 힘을 지니고 있듯,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장애를 그저 몸의 손상으로만 보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바로 그 선택이라는 생각이 그의 철학적 신념의 핵심을 이루었다. 에픽테토스가 보기에 어떤 인간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온전한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연극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극작가가 네가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총독이나 평범한 개인을 연기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라. 주어진 배역을 잘 연기하는 것이 너의 일이고, 그 배역을 고르는 것은 다른 이의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어법

- **That he even survived into adulthood is a surprise** :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 → 단수 동사 is. even = ~만으로도(강조).
- **Later Christian writers portray Epictetus's master as violent and depraved, at one point twisting Epictetus's leg with all his might** : portray A as B = A를 B로 그리다. twisting ~ = 분사구(의미상 주어 = the master). with all one's might = 온 힘을 다해.
- **Trying to get a disobedient young kid to follow instructions?** : 앞의 As a punishment? 처럼 주어 · 동사가 생략된 의문 조각(Was he trying ~?). get + O + to V = O가 ~하게 하다(get은 to부정사를 쓴다).
- **All we hear is that Epictetus calmly warned him about taking it too far** : All (that) we hear = 우리가 듣는 전부(목적격 관계사 생략) → 단수 is + 보어 that절. warn A about -ing. him = 주인, take it too far = 도를 넘다.
- **We can't be certain whether it came from this painful incident or another, but undoubtedly he was hobbled by slavery, yet somehow unbroken all the same** : certain whether A or B = A인지 B인지 확신하다. it = the limp, another = another incident. 과거분사 hobbled · unbroken이 yet으로 대비. all the same = 그래도.
- **Epictetus, as we each hold the power to do, chose to see his disability as only a physical impairment** : as = ~하듯(양태). to do = to choose(앞 동사를 받는 대동사 do). see A as B = A를 B로 보다.
- **in fact it was that idea of choice, we shall see, that defined the core of his philosophical beliefs** : It was ~ that 강조구문(주어 that idea of choice 강조). we shall see = 삽입절(앞으로 보겠지만).
- **For this is your business, to act well the character assigned you; to choose it is another's** : this = 뒤의 to act ~(동격 to부정사). the character (which is) assigned (to) you = 과거분사 후치 수식. another's = another's business(뒤 명사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praved	타락한	corrupt, wicked	virtuous
might	힘	strength	weakness
disobedient	말을 듣지 않는	defiant	obedient
snap	툭 부러지다	break	—
shudder	몸서리치다	tremble	—
senselessness	무의미함	pointlessness	meaningfulnes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lf-mastery	자기 통제	self-control	indulgence
limp	절뚝거림	lameness	—
hobble	다리를 절게 만들다, 발을 묶다	lame, hamper	—
impediment	장애, 방해	obstacle	aid
impairment	손상, 장애	damage	—
playwright	극작가	dramatist	—
assign	맡기다, 배정하다	allot	—

내용 일치 다리 이야기 =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의 전언 · 비튼 이유는 모름 · 에픽테토스는 차분히 경고 · 부러져도 소리 · 눈물 없이 미소 · 평생 절뚝임 — 이 사건 때문인지 확실치 않음 · 다리를 저는 것 = 다리의 장애이지 의지의 장애가 아님 · 누구도 삶의 온전한 작가가 아님(연극의 비유). **밑줄 의미** Didn't I warn you? = 고통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자기 통제 / an impediment to the leg, but not to the will = 몸은 묶여도 마음의 선택은 묶이지 않는다 / act well the character assigned you = 배역은 고를 수 없지만 그 배역을 어떻게 연기할지는 우리 몫.

> **한 줄 요약** 주인에게 다리를 꺾이고도 미소 지었다고 전해지는 에픽테토스는, 장애를 몸의 손상으로만 보기로 선택했고 맡은 배역을 잘 연기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가르쳤다.

24-3 네로의 궁정, 노예의 노예 175쪽 ¶9 ~ 176쪽 ¶3

원문 위치 원서 175쪽 ¶9 ~ 176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5쪽 ¶9 첫 문장	In Nero's court in the 60s AD	숫자·장소
▲	175쪽 ¶9 첫 문장	Epictetus would have seen	would have p.p.(추정)
★	175쪽 ¶9 둘째 문장	his last million and a half sesterces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75쪽 ¶9 셋째 문장	Was it with sarcasm or genuine bafflement that … replied	강조구문의 의문문
▲	175쪽 ¶10 첫 문장	It must have also been revealing for Epictetus to watch Epaphroditus … contorting himself	가주어 + for 의미상 주어 + to V / watch O -ing
◆	175쪽 ¶10 첫 문장	flattering even the man's cobbler	지칭: the man = Nero
◆	175쪽 ¶10 다섯째 문장	you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	밑줄 의미 1순위
●	175쪽 ¶11	turns even a powerful person into a supplicant	반전 후보 → master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6쪽 ¶1 셋째·넷째 문장	Freedom is more than a legal status. It's a state of mind, a way of living.	빈칸·요지 1순위
▲	176쪽 ¶1 셋째 문장	Seneca may well have been the person who introduced	may well have p.p.(추정)
▲	176쪽 ¶2	Seneca, unable to walk away ..., ultimately forced to submit to suicide, was not trapped	형용사구 · 분사구 삽입 + 동사
▲	176쪽 ¶3 둘째 문장	It is better to starve ... than to live anxiously amidst abundance	be better to A than to B
▲	176쪽 ¶3 셋째 문장	Seeing someone like Agrippinus — whom Epictetus likely also met—would have been	동명사 주어 + 목적격 whom + likely
★	176쪽 ¶3 넷째 문장	no man is a slave who is free in his will	빈칸 후보 · 관계절이 떨어져 놓임

내용

서기 60년대 네로의 궁정에서 에픽테토스는 당시 로마의 사치와 광기와 모순을 모두 보았을 것이다. 그는 뒤에, 마지막 남은 150만 세스테르티우스(오늘날로 최소 300만 달러)밖에 없다며 에파프로디토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본 이야기를 했다. 부유한 주인은 "이 사람아,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지냈나,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나?"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이 빈정거림이었는지 순수한 당혹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신에게 엄청난 힘을 휘두르던 에파프로디토스가 네로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며, 호의를 얻으려 네로의 구두장이에게까지 아첨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에픽테토스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그는 집정관 자리를 얻으려고 뼈가 빠지게 애쓰는 후보들을 보았다. 기대되는 선물, 열어야 하는 구경거리, 앞서 나가려면 몇 년이고 거쳐야 하는 관직의 사슬을 보았다. 이게 자유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 대단하고 위엄 있는 관직과 명예를 위해 너희는 남의 노예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리하여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로마의 부자들은 오늘날의 부자와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부유해도 야망은 힘 있는 사람조차 더 얻기를 바라며 애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세네카는 "자유는 우리가 얻으려 애쓰는 상이다. 아무것에도, 강제에도 우연한 사건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썼다. 에파프로디토스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집이라면 세네카의 책이 놓여 있었을 텐데, 그런 세네카가 정신 나간 주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에픽테토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작가로서 세네카는 에픽테토스를 스토아 철학에 처음 이끈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본보기로는 분명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자유는 법적 지위 이상이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고 삶의 방식이다. 네로를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끝내 자살을 강요받은 세네카는 에픽테토스와 같은 노예 상태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롭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에픽테토스가 로마의 궁전과 관청에서 본 것에 경악했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분하고 자신 있는 마음으로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곤 했다. 에픽테토스가 아마 만났을 아그리피누스 같은 사람은 강력한 반례였을 것이다. 제 박자대로 걷는 사람은 둘러싼 폭정에도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뒤에 "의지가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도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글 속의 세네카보다 실천하는 아그리피누스에 훨씬 가깝게 들린다.

어법

- **In Nero's court in the 60s AD, Epictetus would have seen all of the opulence, insanity, and contradictions of Rome at that time** : would have p.p. = ~했을 것이다(기록이 아니라 저자의 추정). the 60s AD = 서기 60년대.

- **Was it with sarcasm or genuine bafflement that Epictetus's rich owner replied** : It was ~ that 강조구문(with sarcasm or bafflement 강조)을 의문문으로 바꾼 형태(Was it ~ that ...?). 저자도 답을 모른다는 뜻.
- **It must have also been revealing for Epictetus to watch Epaphroditus ... contorting himself to remain on Nero's good side, down to flattering even the man's cobbler** : 가주어 it – 진주어 to watch, for Epictetus = 의미상 주어.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추정). watch + O + -ing(지각동사). down to -ing = ~에 이르기까지. the man = Nero.
- **For the sake of these mighty and dignified offices and honors you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 and are thus the slaves of men who are not free themselves** : for the sake of = ~을 위해. 주어 you에 동사 kiss · are가 병렬. thus = 그리하여. themselves = 강조의 재귀대명사.
- **As a writer, Seneca may well have been the person who introduced Epictetus to Stoicism** : may well have p.p. = ~였을 가능성이 크다(추정 — 단정 아님). introduce A to B = A를 B에 처음 소개하다.
- **Seneca, unable to walk away from Nero's service, ultimately forced to submit to suicide, was not trapped in the same slavery as Epictetus** : 주어 Seneca와 동사 was 사이에 형용사구(unable to V)와 과거분사구(forced to V)가 삽입. the same A as B = B와 같은 A. submit to = ~에 굴복하다(to는 전치사 → 명사 suicide).
- **It is better to starve to death in a calm and confident state of mind than to live anxiously amidst abundance** : 가주어 it – 진주어 to starve. 비교 대상도 to부정사(than to live)로 맞춘다. amidst = ~ 한가운데서.
- **"For no man is a slave who is free in his will," ... sounding much more like Agrippinus in practice than Seneca on the page** : 관계절 who is free in his will이 선행사 man과 떨어져 문장 끝에 놓였다(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피함). sounding = 분사구문. much + 비교급 = 훨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opulence	사치, 호화	luxury	poverty
insanity	광기	madness	sanity
sarcasm	빈정거림	mockery	sincerity
bafflement	당혹	confusion	understanding
revealing	많은 것을 드러내는	enlightening	—
contort	비틀다, 일그러뜨리다	twist	straighten
flatter	아첨하다	fawn on	insult
dignified	위엄 있는	stately	undignified
supplicant	애원하는 사람	petitioner	—
compulsion	강제	coercion	free will
deranged	정신 나간	insane	sane
abundance	풍요	plenty	scarcity
tyranny	폭정	despotism	liberty

내용 일치 네로의 궁정 = 60년대 · 150만 세스테르티우스(최소 300만 달러)로 울상인 사람 · 에파프로디토스는 네로의 구두장이에게까지 아첨 · 세네카 = 에픽테토스를 스토아에 입문시켰을 수도(may well have) · 네로를 떠나지 못하고 자살을 강요받음 · 아그리피누스 = 아마(likely) 만났을 사람 · 글의 세네카보다 실천의 아그리피누스에 가까움. **밑줄 의미**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 = 높은 자리를 얻으려 권력자의 하인에게까지 굽실거림 →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노예 / a supplicant =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더 얻으려 애원하는 처지 / Freedom is more than a legal status = 자유는 법적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 삶의 방식.

> **한 줄 요약** 네로의 궁정에서 권력자들이 남의 노예에게까지 굽실거리는 것을 본 에픽테토스는, 자유가 법적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배우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다.

24-4 무소니우스의 교실, 병원 같은 강의실 176쪽 ¶4 ~ 177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76쪽 ¶4 ~ 177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6쪽 ¶4 첫 문장	came formally to philosophy, though we are not sure when	though + 생략된 간접의문문
★	176쪽 ¶4 둘째 문장	By 78 AD … returned from his third exile	숫자 — 서답형·내용 일치 후보
◆	176쪽 ¶5 둘째 문장	He would not be stopped, not even by Musonius	지칭: He = Epictetus
★	176쪽 ¶5 셋째 문장	silence was a sign of attentive students	빈칸 1순위 · 23장 연결
▲	176쪽 ¶5 셋째 문장	who would have been in his twenties by the time he met Rufus	would have p.p.(추정) + by the time
●	176쪽 ¶5 셋째 문장	if a student praised him, it meant they had utterly missed	반전 후보 → grasped
▲	176쪽 ¶6 둘째 문장	made each of his students feel like he truly understood them	사역 make + O + 원형 / each of + 복수
◆	176쪽 ¶6 셋째 문장	seek to penetrate to the very intellect of his hearer	밑줄 의미: 학생 한 사람의 생각 깊숙이
▲	176쪽 ¶7 첫 문장	so pointed and so personal that it felt as if another student had whispered	so ~ that + as if 과거완료
▲	176쪽 ¶7 셋째 문장	It is not as bad as if I had set fire to the Capitol	as ~ as if + 과거완료
◆	176쪽 ¶7 다섯째 문장	the thing you missed is the Capitol	밑줄 의미 1순위
▲	176쪽 ¶7 일곱째 문장	To make a mistake, to use weak logic, to fail to spot … was to fail	to부정사 주어 셋 + 보어 to부정사
◆	176쪽 ¶7 아홉째 문장	as bad as burning Rome and dancing on the ashes	밑줄 의미: 실수를 줄여 말하는 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6쪽 ¶8 ~ 177쪽 첫 줄	The philosopher's lecture-hall is a hospital	빈칸·밑줄 1순위
▲	177쪽 첫 줄	You shouldn't walk out of it feeling pleasure, but pain	분사(feeling) + not A but B

내용

에픽테토스가 언제 정식으로 철학에 입문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서기 78년, 무소니우스 루푸스가 세 번째 망명에서 돌아왔을 무렵에는 에픽테토스가 그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몰래 빠져나가 강의를 들었을까? 주인이 죄책감에서 강의를 들으러 가게 해 주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에픽테토스가 길을 찾아낸 것은 분명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까다로운 스승인 무소니우스조차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무소니우스는 침묵이 주의 깊은 학생의 표시라고 말했고, 그를 만났을 무렵 20대였을 에픽테토스는 뒤에, 학생이 자신을 칭찬하면 그것은 그 학생이 강의가 겨눈 도전을 완전히 놓쳤다는 뜻이라고 무소니우스가 믿었다고 회고했다. 그 도전은 막연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뛰어난 스승들처럼 무소니우스는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을 속속들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다. 그는 좋은 스승이라면 "듣는 이의 지성 그 자체에까지 파고들려고 해야 한다"고 했고, 에픽테토스에게 일어난 일이 분명 그랬다. 에픽테토스는 다른 학생이 자기 약점을 모두 스승의 귀에 속삭여 준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날카롭고 개인적인 가르침을 묘사했다. 한번은 실수를 하고 변명하려 했다. "카피톨리움에 불을 지른 것만큼 나쁘지는 않잖습니까." 무소니우스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이번 경우에는 네가 놓친 것이 카피톨리움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최선 중의 최선을 요구한 스승이었다. 실수하는 것, 허술한 논리를 쓰는 것, 자기모순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철학 전체에 실패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줄여 말한다면? 무소니우스에게 그것은 로마를 불태우고 그 재 위에서 춤추는 것만큼 나빴다. 바로 이런 스승에게서 에픽테토스는 철학을 재미있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진지한 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뒤에 자기 학생들에게 말했다. "철학자의 강의실은 병원이다. 너희는 즐거움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며 나가야 한다. 들어올 때 너희는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어법

- **At some point, Epictetus came formally to philosophy, though we are not sure when** : though = 비록 ~지만(양보). when 뒤에 he came formally to philosophy가 생략된 간접의문문.
- **By 78 AD, though, when Musonius Rufus returned from his third exile, Epictetus was there to study under him** : by + 시점 = ~ 무렵에는(이미). when절은 78 AD를 풀어 쓴 설명. to study = 목적의 to부정사. him = Musonius.
- **Epictetus, who would have been in his twenties by the time he met Rufus, would later recount that Rufus also believed that if a student praised him, it meant they had utterly missed the challenge his lectures had aimed at them** : would have been = ~였을 것이다(추정). by the time + 절 = ~할 무렵에는. 대과거 had missed · had aimed. they = a student(성별을 밝히지 않는 단수 they). the challenge (that) his lectures had aimed at them = 목적격 관계사 생략.
- **Musonius made each of his students feel like he truly understood them at their core** : 사역동사 make + O + 원형(feel). each of + 복수 명사 = 단수 취급. feel like + 절 = ~처럼 느끼다(구어).
- **a teaching style that was so pointed and so personal that it felt as if another student had whispered all of your weaknesses in the teacher's ear** : so ~ that 결과 구문. as if + 과거완료 = (실제로는 아니지만) ~했던 것처럼. your = 일반인 주어.
- **"It is not as bad as if I had set fire to the Capitol," he said** : as + 형용사 + as if + 과거완료 = 마치 ~했던 경우만큼. set fire to = ~에 불을 지르다.

- **To make a mistake, to use weak logic, to fail to spot your own inconsistency was to fail philosophy entirely** : to부정사 셋을 하나의 행위로 묶어 단수 동사 was. 보어도 to부정사(to fail) — 주어와 보어를 같은 형태로 맞춘 대구.
- **You shouldn't walk out of it feeling pleasure, but pain, for you aren't well when you enter it** : feeling = 동시 상황의 분사(나가면서 ~을 느끼다). not A but B를 shouldn't ... feeling pleasure, but pain으로 나눠 썼다. for = 왜냐하면(등위접속사). it = the lecture-hall.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rmally	정식으로	officially	informally
exile	망명, 추방	banishment	return
sneak off	몰래 빠져나가다	slip away	—
guilt	죄책감	remorse	—
attentive	주의 깊은	alert	inattentive
recount	이야기하다, 회고하다	relate, recall	—
utterly	완전히	completely	partly
penetrate	꿰뚫다, 파고들다	pierce	—
pointed	날카로운, 신랄한	sharp, cutting	vague
inconsistency	모순	contradiction	consistency
minimize	줄여 말하다, 축소하다	downplay	exaggerate
diversion	기분 전환, 오락	amusement	—

내용 일치 철학 입문 시점은 모름 · 78 AD 세 번째 망명에서 돌아온 무소니우스 밑에서 공부 · 그때 20대였을 것(추정) · 침묵 = 주의 깊은 학생의 표시 · 학생의 칭찬 = 도전을 놓친 것 · 카피톨리움 일화: 변명 → 바보라는 꾸짖음 · 철학자의 강의실 = 병원. **지칭** 176쪽 ¶4 study under him = Musonius / Did he sneak off의 he · let him attend의 him = Epictetus / ¶5 He would not be stopped = Epictetus, a student praised him = Musonius(Rufus) / ¶7 called him a fool = Epictetus, "In this case," he said = Musonius / 177쪽 첫 줄 it = the lecture-hall.

> **한 줄 요약** 78년 무렵 무소니우스 밑에서 공부한 에픽테토스는 칭찬보다 침묵을, 변명보다 정직한 자기 점검을 요구한 스승에게서 철학을 병원 같은 진지한 일로 배웠다.

24-5 두 가지 노예, 자유인의 선택 177쪽 ¶1~¶8

원문 위치 원서 177쪽 ¶1~¶8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1 첫 문장	Although Musonius Rufus was not a slave, he and Epictetus had long conversations	양보 although
★	177쪽 ¶1 둘째 문장	Musonius with his repeated exiles, and Epictetus living through bondage	대비 — 내용 일치 후보
▲	177쪽 ¶1 셋째 문장	instead of taking bitterness …, they were both pushed … toward realizing that	instead of -ing / 수동 + toward -ing
★	177쪽 ¶1 셋째 문장	the only power they actually had was over their mind and their character	빈칸·요약 후보
▲	177쪽 ¶1 넷째 문장	If a person gave away your body …, you'd be furious	가정법 과거
◆	177쪽 ¶2 첫 문장	Which of these forms of slavery is more shameful?	지칭: these forms = 몸을 내주는 것 · 마음을 내주는 것
★	177쪽 ¶3 첫 문장	in his thirties … made free by fact and law as well as spirit	숫자 — 서답형·내용 일치 1순위
▲	177쪽 ¶3 둘째 문장	the same choices each of us gets when we enter the world as adults	관계사 생략 + each of us(단수)
●	177쪽 ¶4 둘째 문장	one of the first to choose … the academic route	반전 후보 → political
▲	177쪽 ¶5	a life closer to Cleanthes's or Zeno's than Athenodorus's or Cato's	소유격 뒤 명사 생략 + 비교
★	177쪽 ¶6 둘째·셋째 문장	by 93 AD, when Domitian banned philosophers … Nicopolis	숫자·인물·장소 — 서답형 1순위
▲	177쪽 ¶6 둘째 문장	His school and his standing were enough that … Epictetus was one who was driven to exile	enough that 결과 + 수동
●	177쪽 ¶6 넷째 문장	explicitly turning away from the Stoicism of the imperial court	반전 후보 → embracing
◆	177쪽 ¶7 셋째 문장	a cog in the enormous imperial hegemon	밑줄 의미: 거대한 제국 권력의 톱니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8 둘째 문장	It was wisdom he was after	강조구문(that 생략)
▲	177쪽 ¶8 셋째 문장	as zealously as the old men at Rome have applied themselves to the matters on which they have set their hearts	as ~ as 비교 + 전치사 + 관계대명사

내용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그와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다 사람이 서로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을 겪었다. 무소니우스는 거듭된 망명으로, 에픽테토스는 속박 속의 삶으로. 그러나 그들은 그 일로 쓰라림을 품거나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는 대신, 그 고통스러운 일들에 떠밀려 자신이 실제로 가진 유일한 힘은 자기 마음과 성품에 대한 힘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에픽테토스는 "누가 네 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면 너는 격분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남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다. 이 두 가지 노예 상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가? 어느 쪽을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가? 30대의 어느 시점에 에픽테토스는 정신만이 아니라 사실과 법으로도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삶은 그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우리 각자가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설 때 마주하는 바로 그 선택지를 내밀었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에픽테토스는 철학에 온전히 몸을 바치기로 했다. 원로원 의원과 장군, 조언자와 부유한 상속자로서 철학에 영향을 받은 직업을 가졌던 다른 스토아들과 달리, 그는 오늘날 학자의 길이라 부를 만한 것을 택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아테노도로스나 카토보다 클레안테스나 제논에 더 가까운 삶이었다. 그는 거의 곧바로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그의 학교와 명성이 상당했기에, 서기 93년 도미티아누스가 철학자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에픽테토스도 망명길에 오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그리스의 니코폴리스라는 도시를 택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걸맞았다. 철학을 가르치는 일로 돌아가는 것은 제논과 클레안테스가 개척을 도운 그리스 스토아로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고 종신직을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가르치는 길을 택함으로써 그는 제국 궁정의 스토아에 분명히 등을 돌렸다. 그는 정신 나간 황제의 계획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최악의 충동을 억누르려 헛되이 고생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거대한 제국 패권의 톱니바퀴가 되지도 않을 것이었다. 대신 진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를 좇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세상의 책임이나 현실에서 달아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정치 공작이나 재산 모으기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그가 구한 것은 지혜, 곧 지혜를 얻고 쓰고 남에게 전하는 법이었다. 그는 "우리 철학자들이 로마의 노인들이 마음 둔 일에 쏟는 만큼 열심히 우리 일에 힘쓴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어법

- **Yet instead of taking bitterness from this, instead of losing their sense of agency over their lives, they were both pushed by these painful events toward realizing that the only power they actually had was over their mind and their character** : instead of + 동명사 둘이 병렬. be pushed toward -ing = ~ 쪽으로 떠밀리다(toward는 전치사 → 동명사). the only power (that) they actually had → 단수 동사 was.
- **"If a person gave away your body to some passerby, you'd be furious," Epictetus said, yet we so easily hand our mind over to other people, letting them inside our heads or making us feel a certain way** : 가정법 과거(If + 과거, would + 원형):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의 가정. hand A over to B. letting · making = 분사구문(결과). make + O + 원형(feel).
- **At some point, in his thirties, Epictetus was made free by fact and law as well as spirit** : make + O + 형용사(free)의 수동 → was made free. A as well as B = B뿐 아니라 A도(사실과 법이 새로 더해진 쪽).

- **Now life presented him with new choices, the same choices each of us gets when we enter the world as adults** : present A with B = A에게 B를 내밀다. the same choices (that) each of us gets: 목적격 관계사 생략, each of us는 단수 → gets.
- **Epictetus was one of the first to choose what today we might call the academic route** : one of the first + to V = ~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call + O + 보어에서 O가 what으로 앞에 나간 구조).
- **It would be a life closer to Cleanthes's or Zeno's than Athenodorus's or Cato's** : 소유격 뒤 반복 명사 life가 생략(Cleanthes's (life)). closer to A than B = B보다 A에 가까운.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His school and his standing were enough that by 93 AD, when Domitian banned philosophers from Rome, Epictetus was one who was driven to exile** : enough that ~ = ~할 만큼 충분한(결과). ban A from B = A를 B에서 금지(추방)하다. was driven = 수동(내몰리다).
- **It was wisdom he was after: how to get it, how to apply it, how to pass it on to others** : It was ~ (that) 강조구문에서 that이 생략. be after = ~을 추구하다. 콜론 뒤 의문사 + to부정사 셋이 wisdom을 풀어 씀.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ondage	속박, 노예 상태	slavery	freedom
bitterness	쓰라림, 원한	resentment	contentment
agency	주도권, 행위 주체성	autonomy	helplessness
passerby	지나가는 사람	bystander	—
furious	격분한	enraged	calm
dedicate oneself to	~에 몸을 바치다	devote oneself to	neglect
heir	상속자	successor	—
following	추종자들	supporters	—
tenure	종신 재직권	permanent post	—
complicit	공모한, 가담한	involved	innocent
rein in	억제하다	restrain	unleash
hegemon	패권 세력	dominant power	—
zealously	열심히	eagerly	half-heartedly

내용 일치 무소니우스는 노예가 아니었음 · 무소니우스 = 거듭된 망명, 에픽테토스 = 속박 · 유일한 힘 = 마음과 성품에 대한 힘 · 30대에 법적으로도 자유 · 학자의 길을 택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하나(클레안테스 · 제논 쪽) · 93 AD 도미티아누스의 철학자 추방 → 그리스 니코폴리스 · 종신직 없음 · 궁정의 스토아에 등을 돌림. **밑줄 의미** Which of these forms of slavery is more shameful? = 몸보다 마음을 남에게 넘기는 쪽이 더 부끄럽고, 그것은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다 / a cog in the enormous imperial hegemon = 거대한 제국 권력의 부속품 / pursue truth where it could be found = 궁정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좇음.

> **한 줄 요약** 30대에 법적으로도 자유를 얻은 에픽테토스는 궁정 대신 철학 교사의 길을 택했고, 도미티아누스에게 추방된 뒤에는 니코폴리스에서 지혜를 가르쳤다.

24-6 우리에게 달린 것, 두 개의 손잡이 177쪽 ¶9 ~ 178쪽 ¶6

원문 위치 원서 177쪽 ¶9 ~ 178쪽 ¶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7쪽 ¶9 첫 문장	derives directly from his experiences as a slave	derive from(자동사 용법 → 능동 derives)
▲	177쪽 ¶9 둘째 문장 ~ 178쪽 첫 줄	Epictetus was reminded daily how little control he had	remind + O + 간접의문문의 수동
★	178쪽 첫 줄 둘째 문장	our "chief task in life"	빈칸 후보
▲	178쪽 첫 줄 셋째 문장	so that I can say clearly to myself which are externals	so that + can / which 간접의문문
★	178쪽 첫 줄 넷째 문장	what is up to us and what is not up to us (ta eph'hemin, ta ouk eph'hemin)	핵심 개념 — 요약·빈칸 1순위
▲	178쪽 ¶1 첫 문장	what remains—what was so central …—is to focus on what is up to us	명사절 주어 + 보어 to부정사
▲	178쪽 ¶1 일곱째 문장	as powerless as humans were over their external conditions	양보의 as ~ as(형용사 + as + S + V)
◆	178쪽 ¶1 여덟째 문장	not even Zeus has the power to break my freedom of choice	밑줄 의미 1순위
◆	178쪽 ¶2 첫 문장	"Every situation has two handles"	밑줄 의미 · 빈칸 1순위
▲	178쪽 ¶2 셋째 문장	No matter our condition, no matter how undesirable the situation	no matter + 명사 / how + 형용사(be 생략)
★	178쪽 ¶3 첫 문장	This decision—which handle we grab—determines what kind of life we have	요지·빈칸 1순위
●	178쪽 ¶4 첫 문장	how affluent and powerful Epictetus's audiences became	반전 후보 → impoverished
★	178쪽 ¶4 첫 문장	more than five hundred miles from Rome	숫자 — 내용 일치 후보
▲	178쪽 ¶4 둘째 문장	a man who … they would have dismissed as a mere slave	관계절 속 삽입 + dismiss A as B
★	178쪽 ¶5 둘째~넷째 문장	a young Hadrian … tacitly endorsed him … a young Marcus Aurelius	인물 — 서답형 후보
▲	178쪽 ¶6 넷째 문장	provided that we decline to relinquish it	provided that = 조건

내용

교사로서 에픽테토스의 가장 강력한 통찰은 노예 경험에서 곧바로 나온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우주의 법칙을 접하게 되지만, 에픽테토스는 거의 태어난 순간부터 날마다 자신이 제 몸조차 얼마나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일깨움받았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는 이 교훈을 그가 말한 우리의 "삶의 주된 과제"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의 말로 그저 "일들을 가려내고 나누어, 무엇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이고 무엇이 내가 실제로 통제하는 선택에 관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언어로는 우리에게 달린 것과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ta eph'hemin, ta ouk eph'hemin)이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뚜렷하게 나누고 나면, 남는 일은, 그리고 노예 에픽테토스의 생존에 그토록 중요했던 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태도, 감정, 바람, 욕구,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의견.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외적인 조건 앞에서 아무리 무력해도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르는 능력만은 늘 지닌다고 믿었다. 그는 "너는 내 다리를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제우스조차 내 선택의 자유는 꺾을 힘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실제로 그의 다리는 묶이고 부러진 적이 있었다. 에픽테토스는 "모든 상황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고 가르쳤다.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하다. 처지가 어떻든, 상황이 아무리 반갑지 않든, 우리는 어느 쪽을 잡을지 고르는 능력을 지닌다. 형제를 이기적인 얼간이로 보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고, 형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도 나쁜 충동이 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인가? 날마다, 상대하는 누구와든 어느 손잡이를 잡느냐 하는 이 결정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한다. 서기 1세기 로마처럼 거칠고 잔인한 시대에, 그토록 많은 역경을 이겨 낸 사람의 통찰을 들으려 학생들이 몰려든 것은 놀랍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로마에서 50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서 가르쳤는데도 청중이 점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점이다. 제국 곳곳의 부모들이, 분주한 궁정에서였다면 한낱 노예로 무시했을 사람에게 삶을 배우라며 자녀를 보냈다. 힘 있는 사람들도 직접 그의 발치에 와 앉았다. 어느 때 미래의 황제인 젊은 하드리아누스가 니코폴리스를 지나다 에픽테토스를 만났다. 그가 강의를 몇 번 들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 기록은 그가 이 스토아를 존경했고 모든 권력을 쥔 뒤에는 그를 암묵적으로 지지했음을 보여 준다(『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는 하드리아누스가 부적격 철학자를 그 직업에서 아예 내쫓기로 유명했다고 전한다). 머지않아 에픽테토스의 강의는 하드리아누스의 입양 손자이자 미래의 왕인 젊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무력함에 대한 에픽테토스의 관심은 당대의 권력 구조에 대한 통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인간이게 하는지를 보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손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내주기를 거부한다면 너무 많은 것이 여전히 우리 손안에 남아 있다.

어법

- **Epictetus's most powerful insight as a teacher derives directly from his experiences as a slave** : derive from = ~에서 나오다(자동사 용법이라 능동형 derives). 같은 뜻을 be derived from(타동사 derive A from B의 수동)으로도 쓸 수 있다. 주어 insight는 단수 → derives.
- **almost from the moment he was born, Epictetus was reminded daily how little control he had, even of his own person** : remind + O + 간접의문문의 수동(was reminded how ~). how little control he had = how + 형용사 + 명사 + S + V 어순. the moment (that) he was born.
- **It was, he said, simply "to identify and separate matters so that I can say clearly to myself which are externals not under my control, and which have to do with the choices I actually control."** : 보어 to identify and separate. so that + S + can = ~할 수 있도록. which are ~ / which have to do with ~ = say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두 개. the choices (that) I actually control.
- **what remains—what was so central to Epictetus's survival as a slave—is to focus on what is up to us** : what remains = 명사절 주어 → 단수 is. 대시 사이는 같은 주어를 다시 풀어 쓴 동격. 보어 to focus = 명사적 to 부정사. be up to A = A에게 달려 있다.
- **Epictetus believed that as powerless as humans were over their external conditions, they always retained the ability to choose how they responded** : as + 형용사 + as + S + V = 아무리 ~해도(양보, =

however powerless humans were). to choose = abilit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how they responded = 간접의문문.

- **No matter our condition, no matter how undesirable the situation, we retain the ability to choose which one we will grab** : no matter + 명사(no matter what our condition is의 줄임), no matter how + 형용사(뒤의 is 생략). which one we will grab = 간접의문문(one = handle).
- **This decision—which handle we grab, day in and day out, with anyone and everyone we deal with—determines what kind of life we have** : 주어 This decision(단수) → determines. 대시 사이 = 결정의 내용(간접의문문). anyone and everyone (that) we deal with: 관계사 생략, 전치사 with가 끝에 남음.
- **parents sent their children to be schooled about life by a man who in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ourt they would have dismissed as a mere slave** : to be schooled = 수동 to부정사(가르침을 '받도록'). who는 dismissed의 목적어(whom도 가능), 관계절 안에 부사구와 주어 they가 들어 있다. dismiss A as B = A를 B로 무시하다. would have p.p. = (궁정에서였다면) ~했을 것.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rive from	~에서 나오다	stem from	—
externals	외적인 것들	outside things	internals
stark	뚜렷한, 극명한	sharp, clear-cut	blurred
categorization	분류	classification	—
retain	유지하다, 지니다	keep	lose
undesirable	반갑지 않은	unwelcome	desirable
flock	떼 지어 모이다	crowd	scatter
adversity	역경	hardship	prosperity
affluent	부유한	wealthy	impoverished
hustle and bustle	북새통, 분주함	commotion	tranquility
tacitly	암묵적으로	implicitly	explicitly
endorse	지지하다, 인정하다	support, approve	oppose
relinquish	내주다, 포기하다	give up	retain

내용 일치 통찰의 뿌리 = 노예 경험 · 삶의 주된 과제 =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과 내가 통제하는 선택을 가르기 · 우리에게 달린 것 = 태도 · 감정 · 바람 · 욕구 · 의견 · 두 개의 손잡이(약한 것 · 강한 것) · 로마에서 500마일 넘게 · 하드리아누스가 니코폴리스에서 만남 · 존경 · 암묵적 지지 · 강의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이어짐. **밑줄 의미** not even Zeus has the power to break my freedom of choice = 몸은 묶을 수 있어도 반응을 고르는 자유는 신도 빼앗지 못한다 / Every situation has two handles = 같은 상황도 어느 쪽에서 붙잡느냐(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 provided that we decline to relinquish it = 스스로 내주지 않는 한 마음의 힘은 남는다.

> **한 줄 요약** 노예 경험에서 우리에게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을 가르는 법을 배운 에픽테토스는, 어느 손잡이를 잡느냐가 삶을 정한다고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황제들에게까지 닿았다.

24-7 판단을 바꾸고, 견디고 삼가라 179쪽 ¶1 ~ 180쪽 ¶2

원문 위치 원서 179쪽 ¶1 ~ 180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79쪽 ¶1 첫 문장	they don't need life to be easy, people to be nice, and money to flow freely	need + O + to V 병렬
★	179쪽 ¶1 셋째 문장	"It's not things that upset us, it's our judgment about things."	요지·빈칸 1순위
●	179쪽 ¶1 다섯째 문장	not without anyone's consent	반전 후보 → with
▲	179쪽 ¶1 여섯째 문장	it is not enough to be hit or insulted to be harmed	가주어 + enough to V
◆	179쪽 ¶1 일곱째 문장	your mind is complicit in the provocation	밑줄 의미: 도발에 넘어간 내 마음도 공범
▲	179쪽 ¶1 여덟째 문장	it is essential that we not respond impulsively	essential that + (should) 원형 · 부정은 not + 원형
◆	179쪽 ¶2	or before they become king	밑줄 의미: 권력자에게도 필요한 교훈
★	179쪽 ¶4 첫 문장	with endurance and equanimity	빈칸 후보
▲	179쪽 ¶4 둘째 문장	It is from Aulus Gellius that one of Epictetus's most famous sayings is preserved	강조구문(전치사구 강조)
★	179쪽 인용	anechou (persist) and apechou (resist)	핵심어 — 빈칸·서답형 후보
◆	179쪽 ¶7 셋째 문장	make the most of the hand you have been dealt	밑줄 의미: 받은 패를 최대한 살려라
●	179쪽 ¶8 둘째 문장	debases and subjugates us	반전 후보 → elevates
◆	179쪽 ¶8 넷째 문장	Where our heart is set, there our impediment lies.	밑줄 의미 1순위
★	180쪽 ¶1 첫 문장	not … on externals but on internals	어휘·빈칸 1순위
▲	180쪽 ¶2 첫 문장	How rare but glorious the man or woman who manages to do so	감탄문(be동사 생략)
◆	180쪽 ¶2 넷째 문장	you are at the Olympic Games	밑줄 의미: 미루지 말라, 시합은 지금

내용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행복하고 싶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쉽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돈이 술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의 의견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정한다.

에픽테토스는 누군가의 동의 없이는 기분 상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기억하라, 맞거나 모욕당하는 것만으로는 해를 입기에 충분하지 않다. 해를 입고 있다고 네가 믿어야 한다. 누가 너를 도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네 마음이 그 도발에 가담했음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인상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면 통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누구나 어릴 때 배워야 할 메시지이고, 적어도 왕이 되기 전에는 배워야 할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에픽테토스가 노예였을 때 한 그대로, 인내와 평정으로. 그의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아울루스 겔리우스를 통해 전해진다. 에픽테토스는 가장 나쁘고 역겨운 두 결점이 인내의 부족과 절제의 부족이라고 말하곤 했다. 견뎌야 할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것, 삼가야 할 행동이나 쾌락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누구든 이 두 낱말을 마음에 새겨 스스로를 이끌고 다스리는 데 쓴다면 거의 죄 없이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 했다. 그 두 낱말은 anechou(견뎌라)와 apechou(삼가라)다. 견뎌라, 그리고 삼가라. 처지가 어떻든 자유를 이루는 재료다. 에픽테토스는 부유한 학생 하나를 가르칠 때마다 자신만큼 가난하고 불리한 처지였던 다른 학생들도 보았을 것이다. 그는 운명에 이리저리 차인 남자들을,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듯 그가 무소니우스의 말을 따랐다면 여자들도 가르쳤을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황제와 미래의 원로원 의원들에게 준 것과 같았다. 네가 받은 패를 최대한 살리는 법을 찾고, 맡은 배역을 노련한 성격파 배우처럼 훌륭히 연기하라. 삶을 삶의 조건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일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이 에픽테토스에게는 힘이었다. 그는 말했다. "기억하라, 우리를 비천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재산과 지위에 대한 욕망만이 아니라 평화와 여가, 여행과 배움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다. 바깥의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에 두는 가치가 우리를 남에게 굴복시킨다. … 마음이 놓인 곳에 우리의 장애가 있다." 그러니 에픽테토스에게 야망은 바깥이 아니라 안을 향해야 했다. 스토아의 가장 크고 인상적인 승리는 다른 사람이나 적군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곧 자신의 한계와 성미와 자아와 하찮은 욕망에 대한 승리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충동이 있다. 우리를 구별 짓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느냐다. 우리를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타고난 이 굽은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다. 그렇게 해내는 남자나 여자는 얼마나 드물고 또 얼마나 빛나는가. 불평하고 투덜대며 가장 낮은 본능의 수준으로 가라앉는 대중보다, 넘어서려 애쓰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가.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진보하는 어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네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결코 제쳐 두지 않는 법으로 삼아라. 어렵거나 즐거운 일, 높이 또는 낮게 평가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시합은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올림픽 경기장에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으며, 너의 진보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일로 무너지거나 지켜진다."

어법

- **they don't need life to be easy, people to be nice, and money to flow freely** : need + O + to V = O가 ~하기를 필요로 하다. 목적어 + to부정사 세 쌍이 병렬(life to be / people to be / money to flow).
- **"It's not things that upset us," he would say, "it's our judgment about things."** : It is not A that ~, it is B = ~하는 것은 A가 아니라 B다(강조구문의 대조). that절 동사 upset은 things(복수)에 맞춘 현재형. would say = 과거의 습관.
- **Remember, it is not enough to be hit or insulted to be harmed, you must believe that you are being harmed** : 가주어 it – 진주어 to be hit or insulted. enough to V = ~하기에 충분한. are being harmed = 진행형 수동(지금 해를 입고 있는 중).
- **Which is why it is essential that we not respond impulsively to impressions** : Which is why = 그것이 ~한 이유다(앞 문장 전체를 받음). essential 같은 필요 · 당위 형용사 뒤 that절은 (should) + 원형 → 부정은 not respond(don't respond가 아님).
- **It is from Aulus Gellius that one of Epictetus's most famous sayings is preserved** : It is ~ that 강조구문(전치사구 from Aulus Gellius 강조). one of + 최상급 + 복수 명사 → 단수 동사 is preserved(수동).
- **when we cannot put up with or bear the wrongs which we ought to endure, or cannot restrain ourselves from actions or pleasures from which we ought to refrain** : put up with와 bear가 목적어 the

wrongs를 공유. refrain from의 from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 from which. restrain oneself from = ~을 삼가다.

- **It doesn't matter what the external thing is, the value we place on it subjugates us to another** : It doesn't matter + 간접의문문 = ~이든 상관없다. the value (that) we place on it: 목적격 관계사 생략, 주어 the value(단수) → subjugates. subjugate A to B = A를 B에 굴복시키다.
- **How rare but glorious the man or woman who manages to do so** : How + 형용사 + 주어 (is)! 감탄문에서 be동사를 생략한 형태. who manages = 선행사 the man or woman(단수 취급). do so = rise above them.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pset	흔들다, 속상하게 하다	disturb	calm
consent	동의	agreement	refusal
provoke	도발하다	goad, incite	soothe
impulsively	충동적으로	rashly	deliberately
equanimity	평정	composure	agitation
self-restraint	절제	self-control	indulgence
refrain (from)	삼가다	abstain	indulge
impoverished	가난한	poor	affluent
debase	비천하게 하다	degrade	elevate
subjugate	굴복시키다, 예속시키다	subdue, enslave	liberate
petty	하찮은	trivial	significant
crooked	굽은	bent, twisted	straight
glorious	빛나는, 영광스러운	splendid	shameful

내용 일치 우리를 흔드는 것 = 일어난 일이 아니라 판단 · 동의 없이는 상처받지 않음 · 반응 전에 잠시 멈춤 · 통제 밖의 상황 = 인내와 평정으로 · 아울루스 겔리우스가 보존 · 두 결점 = 인내 부족 · 절제 부족 · 두 낱말 = persist(견뎌라) · resist(삼가라) · 여자들도 가르쳤을 것(추정) · 야망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 가장 큰 승리 =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 **밑줄 의미** your mind is complicit in the provocation = 도발에 넘어갔다면 내 마음이 동의한 것 / make the most of the hand you have been dealt = 처지를 탓하지 말고 최대한 살려라 / Where our heart is set, there our impediment lies = 마음을 두는 바깥 것이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된다 / you are at the Olympic Games = 진보는 미룰 수 없고 바로 지금이 시합이다.

> **한 줄 요약**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흔드는 것은 판단이고, 통제 밖의 일은 견디고 삼가며 맞서야 하며,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라고 가르쳤다.

24-8 잃을 수 있는 것은 가진 것뿐 180쪽 ¶3 ~ 181쪽 ¶4

원문 위치 원서 180쪽 ¶3 ~ 181쪽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0쪽 ¶3 첫 문장	It was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deprived of so much that formed	강조구문 + 완료 수동 동명사
▲	180쪽 ¶3 둘째 문장	It was as if he said to himself	as if + 과거
★	180쪽 ¶4 첫 문장	stole an iron lamp that he kept burning in a shrine	내용 일치 1순위(쇠 등잔) · keep + O + -ing
●	180쪽 ¶4 둘째 문장	a Stoic was not to trust these strong emotions	반전 후보 → follow / be to V(의무)
◆	180쪽 ¶4 넷째 문장	you will find an earthenware lamp; for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	밑줄 의미 1순위
★	180쪽 ¶5 둘째 문장	so don't ascribe more value to them than they deserve	요지·빈칸 후보
★	180쪽 ¶6	for three thousand drachmas	숫자 — 서답형 후보
▲	180쪽 ¶7 첫 문장	was cautious not to let his self-discipline become a vice	not to V + let + O + 원형
★	180쪽 ¶7 여섯째 문장	it should be done for its own sake— not for congratulations or recognition	주장 1순위
★	180쪽 ¶8 첫 문장	never had children, but … adopted a young orphan	내용 일치·무관 문장 후보
▲	180쪽 ¶8 둘째 문장	It is haunting then, to imagine him practicing steeling himself against the loss	가주어 + practice -ing
★	180쪽 ¶8 셋째 문장	who himself would lose seven children	숫자 — 원서 표기(26장은 여덟)
▲	181쪽 ¶1 둘째 문장	his precious son was not his possession, nor were his friends	nor + 도치
◆	181쪽 ¶1 넷째 문장	they belong to us only in trust	밑줄 의미: 잠시 맡아 둔 것
▲	181쪽 ¶3 첫 문장	If this practical bent put him at odds with other Stoics, so be it	so be it(가정법 현재 관용구)
◆	181쪽 ¶4 여섯째 문장	I can't call a person a hard worker just because I hear they read and write	밑줄 의미: 읽고 쓰는 것이 곧 노력은 아니다

내용

그토록 많은 것을 빼앗겨 본 경험이 에픽테토스를 세속의 소유에서 초연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가 스스로에게 "이제 누구도 내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도둑이 에픽테토스의 집에 들어와, 그가 현관의 작은 신단에 늘 켜 두던 쇠 등잔을 훔쳐 갔다. 그는 순간 실망과 분노를 느꼈지만, 스토아는 이런 강한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잠시 멈추어 자신을 점검하고, 도둑맞은 일을 다르게 지나가는 길을 찾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친구여, 내일이면 질그릇 등잔을 구하겠지. 사람은 가진 것만 잃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진 것만 잃을 수 있다. 소유물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 그것에 마땅한 것보다 큰 가치를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마다 삶은 아프게 그것을 다시 일깨운다. 그가 죽은 뒤, 빼앗길 수 있는 물건을 갖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이 분명한 한 숭배자가 에픽테토스의 질그릇 등잔을 3,000드라크마에 샀다는 것은 이 검소한 스승의 명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물질을 거부하면서도 에픽테토스는 자기 훈련이 악덕이 되거나 남과 겨루는 시합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말했다. "몸을 검소한 생활에 길들였다면 그것을 뽐내지 말라. 물만 마신다면 그 사실을 늘 떠벌리지 말라. 언젠가 인내 훈련을 하고 싶다면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하라." 진보는 훌륭하다. 자기 계발은 가치 있는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축하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해야 한다. 에픽테토스에게는 자녀가 없었지만, 어린 고아를 입양해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웠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러니 아버지가 되어 누린 기쁨마저 잃을 수 있다는 데 대비해 마음을 단련하는 그를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진다. 평생 일곱 자녀를 잃게 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전한다. 아들에게 잘 자라고 입 맞출 때 "아침이면 이 아이가 죽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속삭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불길한 말 하지 말라고? 자연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 곡식이 베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운명을 건드리는 것인가?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웠을 리 없지만, 그는 경험으로 삶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중한 아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친구도 학생도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싶었다. 이것들의 운명은 대체로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스토아에게 그것은 단 하나를 뜻한다. 그것들을 가진 동안 소중히 여기되, 그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일 뿐이며 언제든 떠날 수 있음을 받아들여라. 실제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다. 에픽테토스가 철학을 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다. 삶을 실제로 혹독하게 겪은 사람에게는 변증술이나 궤변에 쓸 여지도 시간도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나아지는 방법, 하루하루 또는 너무 자주 폭군이 다스리는 제국에서 사람에게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이런 실용적 성향 때문에 다른 스토아들과 어긋난다면 그래도 좋았다. 그는 물었다. "덕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순조롭게 흐르는 삶이다. 그렇다면 누가 진보하고 있는가? 크리시포스의 많은 저작을 읽은 사람인가? 덕이란 그것뿐인가? 크리시포스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은 행동이었다. 읽기도, 외우기도, 자기 이름으로 인상적인 글을 펴내는 것조차 아니었다. 오직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사상가, 더 나은 시민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밤새도록 하더라도 그저 읽고 쓴다는 말만 듣고 누군가를 부지런한 사람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알기 전에는 그를 근면하다고 여길 수 없다. … 그가 애쓰는 목적이 자신의 지배 원리이고, 그것이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어법

- **It was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deprived of so much that formed Epictetus's detachment from worldly possessions** : It was ~ that 강조구문(주어 the experience 강조). having been deprived of = 완료 수동 동명사(앞서 빼앗겼던 경험). deprive A of B의 수동 → be deprived of B.
- **a thief entered Epictetus's home and stole an iron lamp that he kept burning in a shrine in his front hallway** : enter는 타동사라 전치사 없이 목적어(entered into는 오답). keep + O + -ing = O를 계속 ~하게 두다(that = keep의 목적어).
- **While he felt a flash of disappointment and anger, he knew that a Stoic was not to trust these strong emotions** : While = ~이지만(양보). be + to부정사 = 의무(~해서는 안 된다). a flash of = 순간적인.
- **"Tomorrow, my friend," he said to himself, "you will find an earthenware lamp; for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 : my friend · you =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for = 왜냐하면(이유의 등위접속사). what he has = 관계대명사 what절(그가 가진 것).

- **You don't control your possessions, so don't ascribe more value to them than they deserve** : ascribe A to B = A를 B에 돌리다(두다). more value ... than they deserve = 마땅한 것보다 큰 가치. them · they = your possessions.
- **Epictetus was cautious not to let his self-discipline become a vice, to become some sort of contest with other people** : be cautious not to V = ~하지 않도록 조심하다(not은 to 앞). let + O + 원형(become). 뒤의 to become ~은 앞의 become a vice를 풀어 쓴 동격.
- **It is haunting then, to imagine him practicing steeling himself against the loss even of the joy being a father brought him** : 가주어 it – 진주어 to imagine. imagine + O + -ing. practice + 동명사(steeling). the joy (that) being a father brought him: 관계사 생략, 관계절 주어는 동명사구 being a father.
- **He wished to remind himself that his precious son was not his possession, nor were his friends or his students or his health** : nor + 동사 + 주어 = ~도 아니다(부정어 nor 뒤 도치). were는 복수 주어 his friends or ... 에 맞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prive	빼앗다	strip, rob	provide
detachment	초연함, 무심함	indifference	attachment
shrine	신단, 사당	altar	—
earthenware	질그릇(의)	clay, pottery	—
ascribe	(가치·원인을) 두다	attribute	—
frugal	검소한	thrifty	extravagant
put on airs	뽐내다	show off	—
broadcast	떠벌리다, 널리 알리다	announce	conceal
haunting	마음에 맴도는, 서늘한	unforgettable	—
steel oneself	마음을 단단히 하다	brace oneself	—
at odds with	~와 어긋나는	in conflict with	in agreement with
sophistry	궤변	fallacy	sound reasoning
industrious	근면한	hardworking	lazy

내용 일치 도둑맞은 것 = 현관 신단의 쇠 등잔 · 대신 구할 것 = 질그릇 등잔 · 사후 한 숭배자가 질그릇 등잔을 3,000드라크마에 삼 · 검소함을 뽐내지 말 것 · 자녀는 없었으나 고아를 입양 · '아침엔 죽어 있을지도'(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함 · 마르쿠스는 일곱 자녀를 잃음) · 변증술 · 궤변에 쓸 시간 없음 · 크리시포스를 많이 읽은 것 ≠ 진보 · 중요한 것은 행동. **밑줄 의미**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 = 가진 것은 언제든 잃을 수 있으니 소유에 과한 가치를 두지 말라 / they belong to us only in trust = 사랑하는 것들도 잠시 맡아 둔 것일 뿐 / I can't call a person a hard worker just because I hear they read and write =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가 노력의 기준이다.

> **한 줄 요약** 쇠 등잔을 도둑맞고도 가진 것만 잃을 수 있다고 말한 에픽테토스는, 아들과 건강마저 맡아 둔 것으로 여겼고 읽기보다 행동을 철학의 목적으로 삼았다.

24-9 손에 쥐는 자유, 설명하지 말고 구현하라 181쪽 ¶5 ~ 183쪽 ¶3

원문 위치 원서 181쪽 ¶5 ~ 183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1쪽 ¶5 둘째 문장	It's impossible to begin to learn that which one thinks they already know	요지·빈칸 후보
▲	181쪽 ¶5 둘째 문장	that which one thinks they already know	that which = what / 삽입절 one thinks
◆	181쪽 ¶5 다섯째·여섯째 문장	This cup is like your mind ... If it is full, it cannot accept anything more.	밑줄 의미: 이미 가득 찬 마음
▲	181쪽 ¶6 둘째 문장	It was then that he journaled or recited	강조구문(시간 부사 then 강조)
◆	181쪽 ¶6 셋째 문장	keep thoughts like these at hand	밑줄 의미 · Encheiridion과 연결
★	182쪽 ¶1 첫 문장	around 135 AD	숫자 — 서답형 후보
●	182쪽 ¶2 첫 문장	neglected to publish a single word	반전 후보 → published many books
★	182쪽 ¶2 셋째 문장	loaned a copy ... by his tutor Junius Rusticus	인물 — 25장 연결
★	182쪽 ¶3 둘째 문장	Arrian ... would publish eight volumes of notes	인물·숫자 — 서답형 1순위
▲	182쪽 ¶3 셋째 문장	it's Arrian's choice of title ... that best captures what ... were designed for	강조구문 + 의문사절 + 전치사 잔류
★	182쪽 ¶3 넷째 문장	Encheiridion, literally meaning "to have at hand"	제목·빈칸 1순위
▲	182쪽 인용	Arrian may have wished to suggest that connotation	may have p.p.(추정)
▲	182쪽 ¶5 첫 문장	has Casca say ... it is with that weapon that Brutus would free himself	사역 have + O + 원형 / 강조구문
◆	182쪽 ¶6	a deeper freedom ... that could also be possessed in one's hand	요약 1순위
★	182쪽 ¶7 둘째 문장	in 1965 ... Colonel James Stockdale ... Stanford	숫자·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183쪽 ¶3	"Don't explain your philosophy, embody it."	주장·밑줄 1순위

내용

사상가이자 스승으로서 에픽테토스는 겸손을 설파했다.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우기 시작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선(禪)에는 스승과 제자가 차를 마시려 앉는 우화가 있다. 스승은 찻잔이 넘칠 때까지 차를 붓는다. 이 잔은 네 마음과 같다고 그는 말한다. 가득 차 있으면 더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쓸모 있는 무언가를 안다는 이 모든 자만을 철학에 오기 전에 내던져야 한다. … 그러지 않으면 크리시포스의 입문서와 논문을 모조리, 거기에 안티파트로스와 아르케데무스의 것까지 보태 읽어도 진보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아침마다 자신과 대화하며 진보를 점검하고, 앞으로 올 일에 제대로 마음을 단단히 했는지 따져 보았다. 그는 바로 그때 일기를 쓰거나 철학을 스스로에게 암송했다. 그는 "밤낮으로 이런 생각을 손 가까이 두고, 쓰고, 소리 내어 읽고, 너 자신과 남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다른 로마인들이 후원자에게 문안을 드리거나 출세하려고 일찍 일어날 때, 에픽테토스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어디서 부족했는지에 집중하려 했다. 그는 평온을 얻으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서 잘못했는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물었다. 에픽테토스는 서기 135년 무렵 죽었다. 그는 이름 없는 노예로 태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원인과 상황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산이 살아남으리라는 것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와 카토처럼 에픽테토스는 생전에 단 한 글자도 출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그의 시대에도 널리 퍼졌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승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서 에픽테토스의 강의록 한 부를 빌려 보게 된다. 에픽테토스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 많은 가르침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드리아누스 아래서 집정관에 오르는 전기 작가인 제자 아리아노스가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받아 적은 노트 여덟 권을 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과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아리아노스가 이 책들의 요약본에 붙인 제목이다. 그는 그것을 『엥케이리디온』이라 불렀는데, 문자 그대로 '손에 쥐다'라는 뜻이다. 에픽테토스의 후대 번역자 A. A. 롱은 이 단어 선택을 이렇게 설명한다. 가장 오래된 용법에서 엥케이리디온은 손칼이나 단검을 가리킨다. 아리아노스는 이 책의 방어적 · 보호적 기능이라는 함의를 내비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에픽테토스의 메시지를 '손 가까이'(procheiron) 두라는, 책의 처음과 끝의 당부와도 맞아떨어진다. 분명히 이를 본떠 에라스뮈스는 1501년 『그리스도교 병사의 교본』이라는 라틴어 책을 펴냈다.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에서 카스카의 입을 빌려 모든 노예가 자유의 원천을 제 손에 쥐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데, 브루투스가 기원전 44년 카이사르의 통치에서 스스로를 해방한 것도 바로 그 무기로였다. 약 네 세대 뒤의 에픽테토스는 실제 노예였고 훨씬 가혹한 폭정 아래 있었다. 그는 살인에 기댈 필요가 없었다. 문자 그대로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종류의 자유, 더 깊은 자유를, 아리아노스가 고맙게도 옮겨 놓은 대로 역시 손에 쥘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해서 투생 루베르튀르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이든 아니든 자유에 대한 에픽테토스의 맹렬한 헌신에 일부 영감을 받아, 동료 아이티 노예들을 이끌고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1965년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은 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되어 거의 틀림없이 포로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스탠퍼드 학생 시절 공부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며 스스로에게 "나는 기술의 세계를 떠나 에픽테토스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천 년을 사이에 두고 같은 가르침이 한 사람이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를 찾고 최악의 처지에서도 꺾이지 않게 해 준 것이다. 미래 세대가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고 마땅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행동 말고는 모두 잊어라.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너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라. 구현하라."

어법

- **"It's impossible to begin to learn that which one thinks they already know," he said** : 가주어 it – 진주어 to begin. that which = what(~하는 것). one thinks는 관계절 속 삽입절(which (one thinks) they already know). one과 they는 같은 일반인 주어.
- **So each morning Epictetus had a dialogue with himself, checking his progress, evaluating whether he had properly steeled himself for what may come** : checking · evaluating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evaluate + whether절. had steeled = 대과거. what may come = 앞으로 올 수 있는 일.

- **Although he had been born into anonymity and slavery and would die of causes and in circumstances not known to us, it was never in doubt that his legacy would survive** : had been born = 대과거, would die = 과거에서 본 미래. not known to us = 과거분사 후치 수식(causes and circumstances).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 **Marcus Aurelius would be loaned a copy of Epictetus's lectures by his tutor Junius Rusticus** : 4형식 loan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에서 간접목적어(Marcus)를 주어로 한 수동태.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But it's Arrian's choice of title of an abridged form of these volumes that best captures what Stoicism and Epictetus's teachings were designed for** : It is ~ that 강조구문(주어 강조 — 단수 choice → captures). what ~ were designed for = 간접의문문(for의 목적어 what이 앞으로 나가 전치사가 끝에 남음).
- **Shakespeare has Casca say in Julius Caesar that every slave holds the source of their freedom in their hand, and it is with that weapon that Brutus would free himself of Caesar's reign in 44 BC** : 사역동사 have + O + 원형(say). it is ~ that 강조구문(전치사구 with that weapon 강조). free oneself of = ~에서 벗어나다. every slave를 their로 받음(성 중립 단수 they).
- **Just as it was that in 1965, as Colonel James Stockdale was shot down over Vietnam, knowing he would almost certainly be taken prisoner, he would arm himself with Epictetus's teachings** : Just as it was that ~ = 마찬가지로 ~하게 된 것도 그러했다(앞 문장 And so it was that과 대구). as = ~할 때. knowing = 분사구문. be taken prisoner = 포로가 되다(take + O + 보어의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umility	겸손	modesty	arrogance
parable	우화	fable, allegory	—
conceit	자만	vanity	humility
obeisance	경의, 문안	homage, deference	disrespect
accountable	책임을 지는	answerable	unaccountable
tranquility	평온	serenity, calm	turmoil
anonymity	무명, 익명	obscurity	fame
abridged	요약한, 축약한	condensed	unabridged
connotation	함의	implication	denotation
replicate	옮겨 놓다, 재현하다	reproduce	—
captivity	포로 생활, 감금	imprisonment	freedom

내용 일치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울 수 없음(선의 찻잔 우화) · 아침마다 자기와의 대화 · 135 AD 무렵 죽음(원인 · 상황은 모름) · 생전에 한 글자도 출판하지 않음(소크라테스 · 카토처럼) · 마르쿠스는 루스티쿠스에게서 강의록을 빌림 · 아리아노스(하드리아누스 아래 집정관) = 노트 여덟 권 · 요약본 『엥케이리디온』 = '손에 쥐다' · 단검의 함의는 '그랬을 수도'(may have) · 1501 에라스뮈스 · 44 BC 브루투스 · 투생 루베르튀르 · 1965 스톡데일(스탠퍼드). **밑줄 의미** If it is full, it cannot accept anything more = 이미 안다고 여기는 마음에는 새로 배울 자리가 없다 / a deeper freedom ... in one's hand = 칼 같은 무기 대신 늘 곁에 두고 꺼내 쓰는 가르침으로서의 자유 / Don't explain your philosophy, embody it = 철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한다.

> **한 줄 요약** 생전에 한 글자도 남기지 않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아리아노스의 『엥케이리디온』으로 '손에 쥐는 자유'가 되어 이천 년 뒤의 포로에게까지 이어졌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24 EPICTETUS]

범위	Epictetus the Free Man (원서 PDF 173~183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pictetus turned his back on material comfort, yet he took care that his self-discipline did not become a fault of its own or a kind of competition with others. If you have trained your body to live on little, he advised, do not boast about it; if water is all you drink, there is no need to keep announcing it. And should you wish to practice enduring hardship, do so for your own benefit rather than for an audience. Growth, after all, is a fine thing, and working to better yourself is well worth the effort. But such work should be its own reward, pursued without any thought of applause or recognition.

① We should train our bodies to live on as little as possible.
② Self-improvement should be pursued for its own sake, not for others' praise.
③ Drinking only water is the best way to build self-discipline.
④ Competing with others is the quickest way to make progress.
⑤ We should share our progress so that others can learn from it.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ike Socrates and Cato before him, Epictetus never published a word while he lived. So how has so much of his teaching come down to us? The credit goes to one of his students, Arrian, a biographer who later became consul under Hadrian. Arrian put out eight volumes of notes taken from his teacher's lectures. He also made a shorter version, and the title he chose for it reveals what Epictetus's teaching was meant to do: Encheiridion, which literally means "to have at hand." The translator A. A. Long points out that in its oldest sense the word meant a small knife or dagger, so Arrian may have wanted to hint that the book was a tool for protecting oneself, something to keep within reach.

① Why Epictetus Refused to Write Anything Down
② Arrian's Rise to the Consulship under Hadrian
③ A Dagger for Every Roman Soldier
④ Kept Close at Hand: How Epictetus's Teachings Survived
⑤ How Socrates and Cato Shaped Epictetus's Styl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According to Epictetus, people who want to be happy, to be treated fairly, or to be wealthy do not need an easy life, kind neighbors, or a steady stream of money. What they need is to see the world correctly. It is not events that disturb us, he taught, but the way we judge them; our opinions shape the reality we live in. No one can offend or frustrate us unless we agree to it. Being struck or insulted, in his view, does not by itself harm us; we must also believe that harm has been done. So if someone manages to provoke you, your own mind has taken part in it. That is why we should pause before reacting instead of acting on impulse.

① Our judgments, not events themselves, determine how we are affected.
② Insults should be answered quickly before they spread.
③ An easy life is the surest path to happiness.
④ We can avoid being provoked by staying away from others.
⑤ Wealth and fair treatment depend mainly on luck.

4. 밑줄 친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Epictetus must have learned a great deal by watching Epaphroditus, a man who held enormous power over him, twist himself into every shape to stay in Nero's favor, even flattering the emperor's shoemaker. He also saw men who hoped to become consul wear themselves out for the post: the presents everyone expected, the public shows they had to stage, the long ladder of offices they had to climb for years. Is that freedom? he must have wondered. Later he wrote that for the sake of grand titles and honors people kiss the hands of another man's slaves, becoming servants of those who are themselves unfree. Rich Romans, like the rich of our own day, let ambition turn them into beggars hoping for still more.

① showing kindness to slaves in order to win their loyalty
② treating their own slaves more gently than other masters did
③ humbling themselves before people who are not free, all for rank and honor
④ giving up their offices in order to serve the poor
⑤ buying the freedom of slaves who served powerful men

5. 밑줄 친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ving been stripped of so much, Epictetus grew detached from worldly things; it was as though he had promised himself that nothing would ever be taken from him again. One night a thief broke into his house and carried off the iron lamp he always kept lit at a small shrine in the entrance hall. For a moment he felt disappointed and angry, but he knew a Stoic should not trust such powerful feelings. He stopped, examined himself, and found another way to see the theft. Tomorrow, he told himself, he would get a clay lamp instead, since a man can only lose what he has. Ironically, once Epictetus had died, an admirer paid three thousand drachmas for that humble clay lamp.

① A thief cannot take what has been carefully hidden.
② Owning many things is the best protection against loss.
③ Anger is a natural and proper response to being robbed.
④ Friends should help us recover what we have lost.
⑤ What we own can always be taken, so we should not overvalue it.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No one knows exactly when Epictetus took up philosophy in earnest. By 78 AD, however, when Musonius Rufus came home from a third exile, Epictetus had become ① his pupil. Perhaps he slipped out to the lectures in secret, or perhaps his master, feeling guilty, gave permission. Either way, he found a path, and nothing could hold ② him back, not even a teacher as demanding as Musonius. In ③ his classroom, silence was taken as the mark of attentive listeners, and praise from a student meant, as Epictetus later recalled, that the challenge of the lesson had been missed entirely. That teacher made every pupil feel deeply understood; a good teacher, ④ he once said, must reach into the very mind of the listener, and that is exactly what ⑤ he did with Epictetu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Epictetus came into the world in Hierapolis in 55 AD, in what is today Turkey, and he knew slavery from the very start of his life, since his mother was a slave. Even his Greek name literally means "acquired one." The region lay under Roman rule and therefore under its harsh laws. One of them, the Lex Aelia Sentia, did not allow a slave to be freed before the age of thirty. It is a disturbing irony that this law came from Augustus, a ruler who had two Stoic philosophers as advisers, and that it robbed Epictetus of thirty years of his life. While still a boy, Epictetus was bought by Epaphroditus, who had once been a slave himself and who later became Nero's secretary, working alongside Seneca.

① 에픽테토스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에서 태어났다.
② 에픽테토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자유인'이라는 뜻이다.
③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을 만든 아우구스투스에게는 스토아 조언자가 없었다.
④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은 서른 살이 되기 전에는 노예를 풀어 줄 수 없게 했다.
⑤ 에파프로디토스는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이 없는 귀족이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Sometime in his thirties, Epictetus became free not just in spirit but in fact and in law, and he faced the questions every young adult faces: how to earn a living and what to do with his life. He chose to devote himself entirely to philosophy. The Stoics before him had been senators, generals, advisors, and rich heirs whose careers their philosophy had shaped; Epictetus, by contrast, was among the first to follow what we might now call an academic path. He soon attracted many followers, and his school grew so prominent that when Domitian drove the philosophers out of Rome in 93 AD, Epictetus had to leave too. He settled in Nicopolis, in Greece, where he could expect no secure position but could teach far from the imperial court.

① 에픽테토스는 30대에 법적으로도 자유인이 되었다.
② 에픽테토스는 철학에 온전히 몸을 바치기로 했다.
③ 에픽테토스는 원로원 의원이나 장군이 된 앞선 스토아들의 길을 따랐다.
④ 에픽테토스는 서기 93년 도미티아누스의 추방으로 로마를 떠나야 했다.
⑤ 에픽테토스는 그리스의 니코폴리스에 자리를 잡았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Seneca had written that freedom, the prize we work for, means being a slave to nothing, neither to force nor to chance. Yet how must Epictetus have felt as he watched Seneca in person ① serving such an unbalanced master? Seneca's books may well have been what first ② introduced him to Stoicism, but Seneca's life taught him a larger lesson: freedom is a state of mind, not just a legal condition. Seneca, ③ who could not leave Nero and was finally made to take his own life, was not free either. Agrippinus, ④ whom Epictetus probably also met, would have shown him that those who follow their own path can stay free under tyranny. It is better, Epictetus would say, to starve with a calm mind than ⑤ lived anxiously amid plenty.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a time as harsh as first-century Rome, it is no wonder that students crowded in to hear a man who had overcome so much hardship. What is (A) [surprising / surprised] is how wealthy and powerful his listeners became, even though his school lay over five hundred miles away from Rome. Parents across the empire sent their children to learn about life from a man (B) [whom / whose] the busy court would have written off as nothing but a slave. At some point Hadrian, who would later become emperor, stopped at Nicopolis while still young and met him. We do not know how many lectures he attended, but the record shows that he admired Epictetus and, once he held supreme power, quietly (C) [endorsed / endorsing] him.

	(A)	(B)	(C)
①	surprising	whom	endorsed
②	surprised	whom	endorsing
③	surprising	whose	endorsing
④	surprised	whose	endorsed
⑤	surprising	whom	endorsing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For Epictetus, real power meant being able to ① accept whatever life brings and to need nothing to be different. He warned that it is not only the hunger for money and rank that ② lowers and enslaves us; the longing for peace, leisure, travel, or even learning can do the same. Whatever the external thing may be, the importance we attach to it makes us ③ dependent on someone else. For this reason, he believed, ambition should be directed ④ outward rather than inward. The greatest victory a Stoic can win is won not against rivals or hostile armies but against oneself: one's limits, temper, ego, and petty wants. All of us have such impulses; what ⑤ distinguishes us is whether we rise above them.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Epictetus taught that any situation can be picked up by one of two handles, one weak and one strong. Whatever our circumstances and however unwelcome the event, we keep the power to decide which handle to take hold of. Suppose a brother treats us badly. We can focus on the idea that he is a selfish fool. Or we can recall that we were born of the same mother, that he does not act this way deliberately, that we love him, and that we too have bad impulses of our own. This choice, made again and again with every person we meet, shapes the kind of life we lead and the kind of person we become. In other words, what matters most is not the situation itself but _____.

① how long it happens to last
② the way we choose to take hold of it
③ the people who caused it
④ how much power others hold over us
⑤ whether it can be avoided entirely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When the bone finally broke, he neither cried out nor shed a tear; he simply smiled at his master and asked, "Didn't I warn you?"

Later Christian writers describe Epictetus's master as cruel and depraved, and they tell of a day when he used all his strength to twist the boy's leg. (①) Whether it was a punishment, a twisted amusement, or an attempt to make a stubborn boy obey, we cannot say. (②) We are told only that Epictetus calmly cautioned him not to go too far. (③) Such a scene makes us shudder, whether from sympathy, horror, or awe at such self-mastery. (④) Epictetus limped for the rest of his days, though it is uncertain whether this incident caused it. (⑤) Lameness, he would later say, hinders the leg but not the will.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Epictetus pursued philosophy with a practical aim in mind. ① Having seen life at its harshest, he had neither space nor time for clever arguments or verbal tricks; he wanted methods for improving himself and for handling whatever a day, or an empire too often ruled by tyrants, might bring. ② If this practical bent set him against other Stoics, he accepted it, asking whether progress meant nothing more than having worked through Chrysippus's many books. ③ Although he had no children of his own, Epictetus took in an orphaned boy and brought him up until he was grown. ④ What mattered to him was action, not reading, memorizing, or even publishing impressive books of one's own. ⑤ He refused to call people hardworking merely because they read and wrote all night; first he needed to know what they were working fo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pictetus later recalled lessons so sharp and so personal that you might think a classmate had quietly reported every one of your faults to the teacher.

(A) Musonius, shaking his head, called him a fool and replied that in this case the Capitol was exactly what he had missed. For such a teacher, an error, a weak argument, or blindness to one's own contradictions meant failing at philosophy as a whole.

(B) Once, having made a mistake, Epictetus tried to excuse it, saying that it was hardly as terrible as burning down the Capitol.

(C) Worse still, in his eyes, was trying to shrink such a failure afterward; that was no better than setting Rome on fire and then dancing in the ruins. Under a teacher like this, Epictetus came to see philosophy not as a pleasant pastime but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Shakespeare's Julius Caesar, Casca says that every slave carries the means of his freedom in his own hand, and with such a weapon Brutus freed himself from Caesar's rule in 44 BC. About four generations later, Epictetus was a real slave under a far harsher tyranny, yet he needed neither murder nor an actual blade. He created a deeper kind of freedom, one that could also be held in the hand, thanks to Arrian's faithful record. His fierce devotion to freedom helped inspire Toussaint Louverture to lead Haiti's slaves against Napoleon's France. And in 1965, when Colonel James Stockdale's plane was hit over Vietnam and he expected capture, he armed himself with the Epictetus he had studied at Stanford.

→ Rather than relying on a(n) (A) _____ weapon as Brutus did, Epictetus offered a kind of (B) _____ freedom that later sustained people facing slavery and captivity.

① physical ..... inner
② physical ..... legal
③ hidden ..... political
④ spiritual ..... inner
⑤ spiritual ..... legal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Epictetus was born a slave in Hierapolis in 55 AD. As a boy he was bought by Epaphroditus, a former slave who became Nero's secretary. By 78 AD he was studying under Musonius Rufus. When the emperor Domitian expelled philosophers from Rome in 93 AD, he moved to Nicopolis in Greece. He never published a word; his student Arrian put out eight volumes of lecture notes. He died around 135 AD.

<QUIZ>

(1) In which city was Epictetus born?
Answer for (1): _____

(2) Who bought Epictetus as a boy?
Answer for (2): _____

(3) Who was teaching Epictetus by 78 AD?
Answer for (3): _____

(4) Which emperor expelled philosophers in 93 AD?
Answer for (4): _____

(5) To which city in Greece did he move?
Answer for (5): _____

(6) True or false: Epictetus published many books.
Answer for (6): _____

(7) Which student published his lecture not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Rome	N. 135 AD
B. Musonius Rufus	O. Chrysippus
C. Hadrian	P. Agrippinus
D. Seneca	Q. 93 AD
E. Domitian	R. Nicopolis
F. 55 AD	S. Junius Rusticus
G. Nero	T. False
H. True	U. eight
I. Epaphroditus	V. 78 AD
J. Athens	W. Zeno
K. Augustus	X. Socrates
L. Hierapolis	Y. Arrian
M. Marcus Aurelius	Z. Cleanthe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들 대부분의 글에서 특권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 원형 / feel + O + -ing)

02 그 법은 노예가 서른 살 생일 전에 해방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make + 가목적어 it + for ~ + to be p.p.)

03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that절 주어 + 단수 동사)

04 그의 철학적 신념의 핵심을 규정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이라는 생각이었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05 풍요 속에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분한 마음으로 굶어 죽는 편이 낫다. (It is better to A than to B)

06 무소니우스는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을 속속들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다. (사역 make + O + 원형 / each of)

07 그는 오늘날 우리가 학자의 길이라 부를 만한 것을 택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one of the first + to V / what절)

08 인간은 외적인 조건 앞에서 아무리 무력해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늘 고를 수 있다. (양보의 as ~ as + S + V)

09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It is not A that ~, it is B)

10 그는 자기 훈련이 악덕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be cautious not to V / let + O + 원형)

11 그의 소중한 아들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nor + 도치)

12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우기 시작할 수 없다. (가주어 it / that which)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에픽테토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 이름의 뜻	
자유에 관해 쓴 스토아의 시간 범위 / 평생 일할 필요가 없었던 두 사람	
노예 해방 나이를 정한 법 / 그 나이 / 법을 만든 황제	
어린 에픽테토스를 산 사람 / 그의 이전 신분 / 뒤의 직책	
다리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 / 부러진 뒤 한 말 /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한 말	
궁정에 도움을 청한 사람의 남은 돈 / 에파프로디토스가 아첨한 사람	
관직을 위해 입 맞추는 것 / 그 결과	
세네카가 정의한 자유 / 아마 만났을 반례의 인물	
무소니우스에게서 배우던 해 / 무소니우스가 돌아오기 전 겪은 일(몇 번째) / 그때 에픽테토스의 나이	
무소니우스가 본 주의 깊은 학생의 표시 / 학생의 칭찬이 뜻하는 것	
변명에 쓴 건물 / 철학자의 강의실을 빗댄 곳	
자유인이 된 때 / 택한 길 / 더 가까웠던 삶	
철학자를 추방한 해 · 황제 / 망명지	
삶의 주된 과제의 두 범주	
선택의 자유를 꺾지 못하는 신 / 모든 상황이 가진 것	

항목	답
가르친 곳과 로마의 거리 / 니코폴리스를 지나며 만난 미래의 황제	
유명한 말을 보존한 사람 / 두 낱말	
도둑맞은 등잔 / 사후 등잔 값	
입양한 사람 / 일곱 자녀(원서 표기)를 잃은 사람	
노트를 펴낸 제자 · 권수 / 요약본 제목의 뜻	
카이사르에게서 벗어난 사람과 그 해 / 에픽테토스에게서 힘을 얻은 두 사람	

4-3. 통합 사고 문제 — 23장과 24장을 잇는 자리

문제

23장에서 무소니우스는 철학자의 말에 청중이 상투적인 칭찬을 쏟아 내고 환호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을 듣고 있는 것이라 했고, 성공한 철학자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밝혔다(165쪽 ¶4~¶5). 또 그는 우리를 이성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의사에 빗대며, 지름길이나 정신만 들게 할 뿐 병은 고치지 못하는 각성제를 거부했다(168쪽 ¶6). 24장에서 에픽테토스는 학생의 칭찬을 스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회고했고(176쪽 ¶5), 철학자의 강의실을 병원에 빗대었다(176쪽 ¶8 ~ 177쪽 첫 줄). 두 장에서 무소니우스가 '잘된 강의'의 표시로 꼽은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이 기준이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의 철학 교육관을 어떻게 잇는지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3장 또는 24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잘된 강의의 표시: not applause or praise, but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